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②

제주 사난 제죽사름

오승훈·오창명·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②

제주 사난 제죽사름

오승훈·오창명·문순덕

발간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해서 정착하는 유입 인구가 귀농이나 귀촌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주해 오신 분들은 갖고 계시던 꿈을 이룬 성취감과 함께 낯선 문화와 환경 등에 따른 크고 작은 고충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로 이주해 정착하신 분들이 제주 사회를 이해하고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제주어를 듣고 소통하는 데 일조하고자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주 공동체 구성원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제주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토박이 도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제주어 대화문과 표준어 대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간 서로 소통하는 모습도 그려 넣었고, 제주 이주민들을 동화 대상이 아닌 공존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시각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제주 이주민들이 제주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일러두기

- ☑ 이 책은 주제별로 6개 장으로 나누어 각 장은 9개에서 12개의 세부 이야기로 전개되도록 구성하였다.
- ☑ 제주어 표기는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7.18.)을 따랐다.
- ☑ 다른 지역 방언과 달리 제주어 표기에는 받침 ‘ㄸ’이 나타나는데 발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받침 ‘ㄸ’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오면 ‘떡없저[머검쩌]’와 같이 그 자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받침 ‘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오면 ‘떡없어[머검서]’와 같이 받침 중 ‘ㅈ’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 ☑ 대화문에는 제주 토박이와 이주민이 대등한 비중으로 등장하는데 이주민도 제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등장인물의 구체적 특성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 ☑ 단어나 풍속 등에 대한 설명이 제주어 대화문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를 ‘알아 두기’에 담았다.
- ☑ 제주어 대화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 사항은 부록으로 덧붙였으며, 녹음 내용을 저장한 매체를 첨부하여 제주어를 들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차 례

I. 제주 사랑들의 어제

- 2 1. 요디가 삼성혈이구나양?
- 4 2. 항바도리엔 헛구나양?
- 6 3. 관덕정이나 놀레 가 보쿠과?
- 8 4. 추사관에 들렁 가게마썸
- 10 5. 승년에 사름덜을 도왓젠 험디다
- 12 6. 이재수난이엔 험 것도 싯구나게
- 14 7. 일제시대엔 항쟁도 헛젠 허명양?
- 16 8. 오닐랑 알드르 강 보게
- 18 9. 제주 스슴 때 다운 성이여

II. 제주 사랑들의 오늘

- 22 1. 친구간 돌아와도 걱정 엇이큰게
- 24 2. 모리 오일장이난 혼번 강 봐
- 26 3. 미짱 종내기가 잘도 험디다양?
- 28 4. 이디 마농 농스 하영 허지양?

- 30 5. 바당 직했이난 막 멍심혜사메
- 32 6. 어떻헌 것덜 질왕 폴아?
- 34 7. 질룬 거 사당 먹으민 뉘주
- 36 8. 막걸리 공장 끝은 것덜은 봐지메
- 38 9. 육깃사름덜도 완 하영 출렛어
- 40 10. 이거 혼번 블라 봅서

III. 제주의 자연과 환경

- 44 1. 검은오름이나 강 보게마썸
- 46 2. 제주 곳자왓 도립공원?
- 48 3. 그딘 어떻헌 디라?
- 50 4. 습지렌 허멍 보전했우게
- 52 5. ㄱ오리오름이엔 허는 거주
- 54 6. 세미나 세밋물이엔 허주
- 56 7. 굴이영 퀘영, 어디 가민 잇우과?
- 58 8. 소섬, 소섬 험다게
- 60 9. 너구털 지다리엔 험니까?
- 62 10. 고사리삼마썸?
- 64 11. 곰생이도 잘 생겨
- 66 12. 태풍 앓덴 했어

IV. 제주의 풍속과 언어

- 70 1. 풋감낭 아니라게
- 72 2. 자리물흰 멍글 중 몰르는디양
- 74 3. 우시 갈 거라
- 76 4. 오닐 조문 가도 어떻 안허여
- 78 5. 예펜삼춘 잘 아난 그레 안네쿠다
- 80 6. 모듬벌촌 잇날부터 허는 풍속이라
- 82 7. 문딱 켜당이우짜?
- 84 8. 육짖말광 하영 툃날 거여
- 86 9. 지역마다 말이 트난다

V. 제주 생활 즐기기

- 90 1. 연극 보레 갓단 앓어
- 92 2. 그 사름 이름 땀 미술관이 싹주
- 94 3. 사진 찍으레 텅겼우다
- 96 4. 도서관이도 즈주 가 낫우다
- 98 5. 제주도 귀경은 하영 허연?
- 100 6. 밭담 축제도 했어

- 102 7. 한라산 둘렛길도 걸어 봐
- 104 8. 이녁도 해안도로 알았구나
- 106 9. 자전거도로에도 한번 가 봐

VI. 더불어 살기

- 110 1. 펜안덜 헛지양?
- 112 2. 흔저 들어와
- 114 3. 영 만나전 반갑수다
- 116 4. 알녁침이 이사 온 사름이우다
- 118 5. 이 어룬신디 왕 인스허여
- 120 6. 책이나 익어 보카 허연마썸
- 122 7. 사름도 사귀곡 좋으큰게
- 124 8. 게민 나도 흔번 가 보카?
- 126 9. 머리핀이나 흥나 상 오게
- 128 10. 나도 끼와 줍서양
- 130 11. 제주 사난 제웃사름이주게

부록

- 133 제주어 길잡이



I.

제주 사랑들의 어제

1. 요디가 삼성혈이구나양?

제주어

송민재 요디가 삼성혈이구나양?

장성철 기주게. 나도 막 오랜만이 와봤어.

송민재 고 씨, 양 씨, 부 씨 하르방이 나온 고망이엔 헨게마는, 고망은 잘 안 보였던게양?

장성철 전이도 와 봤주마는, 고망은 거즘 메와져 불었어.

송민재 세 하르방이 살 땐 탐라국이엔 헛젠 허명양?

장성철 나도 말만 들었주. 경 해연 요지금 완, 탐라 천 년이엔 덜 골안게.

표준어

송민재 여기가 삼성혈이네요?

장성철 그렇지. 나도 아주 오랜만에 와 봐.

송민재 고 씨, 양 씨, 부 씨 할아버지가 나온 구멍이라고 하던 데, 구멍은 잘 안 보이네요?

장성철 전에도 와 봤지만, 구멍은 거의 메워져 버렸어.

송민재 세 할아버지가 살 때는 탐라국이라고 했다면서요?

장성철 나도 말로만 들었지. 그래서 요즘 들어서 탐라 천 년이라고들 하지.



삼성혈



거휘 풀기

요디 - 여기, 이곳

오랜만이 - 오랜만에

하르방 - 할아버지

고망 - 구멍

전이 - 전에

거즘 - 거의

메와지다 - 메워지다

요지금 - 요즘

덜 - 들(복수)



알아 두기

삼성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세 개의 큰 구멍. 탐라국의 개조(開祖)인 고(高), 양(良), 부(夫) 삼신(三神)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곳.

탐라국 고려 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던 나라 이름.

2. 항바도리엔 헛구나양?

제주어

조현지 할무니! 이딘 어디파?

오성미 어딘 어디라게. 항바도리엔 허는 디주게. 맞다, 요조금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렌 헤라.

조현지 할무니넨 머엔 불렀우과?

오성미 머엔 불렀어게, 항바도리엔 헛주. 고성이나 괴성이엔도 헛저. 흑으로 쌍아시난 흑성이엔도 헛주.

조현지 요새 항파두리렌 허는디, 할무니넨 항바도리엔 헛구나양?

오성미 오게.

표준어

조현지 할머니! 여긴 어디예요?

오성미 어딘 어디겠어. 항바도리라고 하는 곳이지. 맞다, 요즘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라고 하던데.

조현지 할머니네는 뭐라고 불렀어요?

오성미 뭐라고 불렀겠어, 항바도리라고 했지. 고성이나 괴성이라고도 했어. 흑으로 쌍았으니 흑성이라고도 했지.

조현지 요새는 항파두리라고 하는데, 할머니네는 항바도리라고 했네요?

오성미 그래.



서히 풀기

할무니 - 할머니

이디 - 여기, 이곳

디 - 데, 곳

요조금 - 요즘

머 - 뭐

흑 - 흙

흑성 - 흙성[土城]



알아 두기

삼별초 고려 시대에 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 군대. 고려 고종 때 설치한 것으로,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를 발전시킨 특수 부대였음. 고려가 몽고에 항복하고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자, 이에 반대하여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본거지를 탐라로까지 옮겼음.

3. 관덕정이나 놀레 가 보쿠과?

제주시

이순주 오늘랑 시간 시메 관덕정이나 놀레 가 보쿠과?

고순녀 경허라. 나도 걸어질 때 혼 번이라도 가 봐사주.

이순주 그디 목관아옌 헨 디도 신디, 귀경이나 험디가?

고순녀 아이고, 귀경헐 저를이 셋이나? 기냥 차 탕 땡기당 봄
만 했주. 그 안에 귀경은 못해 봤저.

표준어

이순주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관덕정이나 놀러 가 보실래요?

고순녀 그러자. 나도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가 봐야겠어.

이순주 거기에 목관아라는 곳도 있는데, 구경이나 하셨어요?

고순녀 아이고, 구경할 겨를이 있었겠니? 그냥 차를 타고 다니
다가 보기만 했지. 그 안에 구경은 못해 봤어.



복원된 제주목 관아



서히 풀기

시다 - 있다

흔 - 한

그디 - 거기, 그곳

귀경 - 구경

저를 - 겨를

기냥 - 그냥

땡기다 - 다니다

안네 - 안에



알아 두기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에 제주목 중심지에 있었던 관아. 현재의 목관아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2002년에 복원 공사를 완료했음.

관덕정 조선시대에 제주목 관아 어귀에 있었던 건물. 조선 초기에 군사의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 지은 뒤, 여러 차례 보수를 했음. 제주시 삼도2동에 있음.

4. 추사관에 들렁 가게마쌌

제주어

김현정 이디 대정골 왓이난 추사관에 들렁 가게마쌌.

진영애 ㄹ만 시라, 그게 어디 잇저마는..... 맞다, 대정현성 동문에 잇저.

김현정 그디 가믄 추사가 살아난 터도 싯곡, 유물도 전시해 뵈텐 험디다.

진영애 경 헛젠 헤라. 나도 말만 들엇인디, 오늘랑 그 안네 귀경이나 헤사키어.

표준어

김현정 여기 대정골에 왔으니 추사관에 들어서 가시지요.

진영애 가만 있어라, 그게 어디 있는데..... 맞다, 대정현성 동문에 있다.

김현정 거기 가면 추사 김정희가 살았던 터도 있고, 유물도 전시해 뵈었다고 하던데요.

진영애 그랬다고 하더라. 나도 말만 들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 구경이나 해야겠어.



서휘 풀기

이디 - 여기, 이곳

ㄱ만 - 가만

시다잇다싯다 - 있다

그디 - 거기, 그곳

경 - 그렇게

안네 - 안에

귀경 - 구경



알아 두기

대정골 조선시대에 대정현성과 대정현성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마을인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등을 아울러서 일컬었던 말인데, 오늘날까지도 노년층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대정현성 조선시대에 대정현 고을[郡衙]에 있었던 성을 이른다. 현성(縣城)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현(縣)에 있었던 성을 이른다.

잇다 표준어 '있다'에 대응한다. 표준어에는 '있다'만 사용되지만, 제주어에서는 중세국어와 같이 '잇다, 이시다, 시다/싯다' 등이 쓰인다.

제주 유배인 조선시대에 제주에 유배 왔던 사람. 동계 정은, 충암 김정, 규창 이건, 복헌 김춘택, 추사 김정희, 운양 김윤식 등이 있음.

5. 송년에 사름덜을 도왔젠 험디다

제주어

- 송선우** 삼춘! 흑교서 김만덕 할무니에 대해영 알앙 오랜마썸.
양지용 김만덕 할무닌 어떤 사름인 중 알아지느냐?
송선우 흑교서 흑쫄 배왓우다. 정조 때 어렵게 살던 기생인디,
돈 버실영 송년에 사름덜을 도왔젠 험디다.
양지용 오게. 요샌 그 할무니 일을 기령 만덕상도 멘들곡, 기념
관도 짓곡 헛저.

표준어

- 송선우** 삼춘! 학교에서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 오라던
데요.
양지용 김만덕 할머니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니?
송선우 학교에서 조금 배웠어요. 정조 때 어렵게 살던 기생인
데, 돈을 벌어서 흥년에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던데요.
양지용 그래. 요새는 그 할머니 일을 기려서 만덕상도 만들고,
기념관도 짓고 했어.



어휘 풀이

학교 - 학교

중 - 줄(의존 명사)

버실다 - 벌다

할머니 - 할머니

헉쓸 - 줌, 조금

송년 - 흥년

사름 - 사람

배우다 - 배우다

멘들다 - 만들다

살아 두기

삼촌 한자어 삼촌(三寸)의 변음으로 실현된 제주어. 기본적으로는 표준어 ‘삼촌’과 같이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는 방계(傍系)로 부모와 같은 항렬의 백부모·숙부모 또는 형제의 자녀와 촌수를 뜻하는 말로 쓰임. 표준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를 때 많이 쓰이지만, 제주어에서는 결혼한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를 때도 일반적으로 쓰임. 이차적으로는 잘 아는 이웃이나 동네 어른을 높여서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쓰임. 예전에는 주로 기본적인 뜻으로 많이 쓰였으나, 근래에는 이차적인 뜻으로도 많이 쓰임.

김만덕 조선 후기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12살에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되었는데, 객주를 운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중, 제주도에 흥년이 들자 제주도민을 위해 양곡을 쾌척함. 그로 인해 ‘의녀반수’로 칭송됨.

6. 이재수난이엔 현 것도 싣구나게

제주어

최기성 성님! 이디선 민란이엔 현 게 엇엇우과?

한동호 무사게. 조선 후기에 화전민이 잇엇인디, 화전세가 하
텐 허연 난이 일어났주. 맞다, 이재수난이엔 현 것도 싣
구나게.

최기성 아! 그건 나도 들어 낫우다. 성님 곶아 가난 이제사 생
각낫우다.

한동호 전인 이재수난이엔 헨게, 요즘은 제주교난이렌 허는 거
답은디?

최기성 경험니다. 신축교난이렌도 허곡, 제주민란이렌도 허곡
양.

표준어

최기성 형님! 여기서 민란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동호 왜 없었겠어. 조선 후기에 화전민이 있었는데, 화전세
가 많다고 해서 난이 일어났지. 맞다, 이재수난이라고
한 것도 있구나.

최기성 아! 그건 저도 들었어요. 형님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생
각나요.

한동호 전에는 이재수난이라고 하던데, 요즘은 제주교난이라
고도 하는 것 같은데?

최기성 그래요. 신축교난이라고도 하고, 제주민란이라고도 하
고요.



제주대정삼의사비 (사진 제공: 문영금 님)

어휘 풀이

성님 - 형님
 이디 - 여기, 이곳
 엇다 - 없다
 무사 - 왜
 잇다 - 있다
 하다 - 많다
 싯다 - 잇다
 곧다 - 말하다
 생각나다 - 생각나다

알아 두기

민란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조선 철종 14년(1863)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를 대표적인 제주 민란으로 봄.

이재수난 1901년에 제주시에서 천주교인과 주민 사이의 충돌로 일어난 난으로, 이재수가 이끌었다는 데서 이재수난 또는 이재수의 난이라 부름.

7. 일제시대엔 항쟁도 헛젠 허멍양?

제주어

조현지 아버지! 저디 해녀 보엿우다.

조형규 보엿저. 전인 즈네엔 곶앗덴 해라.

한동호 경헛주. 물질 잘허민 상즈네, 못허민 하즈네엔 곶아낫주.

조형규 일제시대엔 항쟁도 헛젠 허멍양?

한동호 기영 허엿주게. 요조금은 해녀항쟁이엔 허는디, 하도리 즈네덜이 어업권 보장해 도렌 허멍 헛젠 해라.

표준어

조현지 아버지! 저기 해녀가 보여요.

조형규 보이네. 전에는 잠녀라고 했더더라.

한동호 그렇지. 물질을 잘 하면 상잠녀, 못 하면 하잠녀라고 했지.

조형규 일제강점기에는 항쟁도 했다면서요?

한동호 그랬지. 요즘은 해녀항쟁이라고 하는데, 하도리 잠녀들이 어업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했다고 하던데.



어휘 풀기

아부지 - 아버지, 아빠

저디 - 저기, 저곳

좁네 - 해녀

곶다 - 말하다

기영 - 그렇게

요조금 - 요즘

덜 - 들(복수)

알아 두기

상좁네 제주에서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여자를 ‘좁네’ 또는 ‘좁네’라 했는데, 이는 한자어 潛女(잠녀)의 옛 발음 ‘좁녀’의 변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오늘날 해녀(海女)에 대응하는 말로 쓰인다. ‘좁네’ 가운데 물질을 잘하거나 깊은 바다에서도 물질을 잘하는 사람을 ‘상좁네(上潛女)’ 또는 ‘상군(上)’이라고 했다.

하좁네 ‘좁네’ 가운데 물질을 잘 못하거나, 얕은 바다에서는 물질을 잘하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물질을 잘 못하는 사람을 ‘하좁네(下潛女)’ 또는 ‘하군(下)’이라고 했다.

좁네항쟁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해녀조합의 횡포에 구좌읍 하도리 좁네들이 항의하면서 벌인 시위. 주로 해녀항쟁이라 하고 있음.

8. 오늘날 알뜨르 강 보게

제주어

고순녀 오닐 시간 낚이나?

이순주 예! 무사마썸?

고순녀 아니게, 저, 대정골 알뜨르엔 헌 디 가 뵈다?

이순주 아니우다. 말만 들어 낚우다마는, 방송으로나 보곡.

고순녀 게민 오늘날 알뜨르 강 보게. 그디 가민 땅굴이영, 고사포 진지영, 비영기 격납고영 싯저.

이순주 좋수다. 낚전이랑 그디 강 보곡, 오당 맛 존 자리회도 먹곡 허게마썸.

표준어

고순녀 오늘 시간 있니?

이순주 예! 왜요?

고순녀 아니, 저, 대정골 알뜨르라고 하는 곳에 가 뵈니?

이순주 아니요. 말로만 들었는데요, 방송에서나 보고.

고순녀 그럼 오늘은 알뜨르에 가서 보자. 거기에 가면 땅굴과, 고사포 진지와, 비행기 격납고가 있어.

이순주 좋아요. 오전에는 거기 가서 보고, 오다가 맛 좋은 자리회도 먹고 그래요.



상모리 산이물구석에 있는 진지땅굴



서히 풀기

오널 - 오늘

무사 - 왜

디 - 데, 곳

게민 - 그러면

그디 - 거기, 그곳

비영기 - 비행기

싯다 - 있다

촌 - 좋은



알아 두기

알드르 제주 지명으로 실제 발음은 [알뜨르]로 실현된다. '아래'의 준말 '알[下]'과 '들'에 대응하는 '드르[野]'가 합성된 말이다. 대정읍 상모리에서 고유명사로 쓰임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웃드르', '알드르'라는 고유지명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일제 군사시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수세에 몰린 일제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군사시설. 비행장, 격납고, 탄약고, 고사포진지, 지하벙커, 진지땅굴(갱도진지) 등의 유적이 남아 있음.

9. 제주 스승 때 다운 성이여

제주 스승

송민재 성님! 이딘 어디파?

장성철 돌로 동글랑허게 다왔이네. 저거가 바로 제주 스승 때 다운 성이여.

송민재 난 저번이 제주4·3평화공원인 가 봤우다마는.

장성철 경헛어? 우리 외하르방광 외할망도 제주 스승 때 희생 뒀엇주. 그디 가민 일름 새겨정 있어.

표준어

송민재 형님! 여기는 어디예요?

장성철 돌로 동그렇게 쌓았잖아. 저게 바로 제주 4·3 때 쌓은 성이야.

송민재 전 저번에 제주4·3평화공원에는 갔었습니다만.

장성철 그랬어?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제주 4·3 때 희생 뒀지. 거기 가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서회 풀기

이디 - 여기, 이곳

동글랑허다 - 동그랗다

답다 - 돌담 등을 쌓다

스습 - 사삼(4·3)

외하르방 - 외할아버지

외할망 - 외할머니

그디 - 거기, 그곳

일름 - 이름

잇다 - 있다



알사 두기

제주 4·3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항쟁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주 4·3성 제주 4·3 항쟁 때인 1949년에 제주도 여러 마을 일대에 돌로 쌓았던 성.



Ⅱ.

제주 사랑들의 오늘

1. 친구간 돌아와도 걱정 없이 크게

제주도

김현정 아이고, 혼자 읍서.

고순녀 이 집은 죽어지는세로 살았어, 전세로 살았어?

김현정 올린 죽어지는세로 살곡, 새해 나민 우리신디 풀아도
렌 했우다.

고순녀 기냥 이디 살 거면 친구간 돌아와도 걱정은 없이 크게.

김현정 예. 체암인 친구간 아니라 부난 집 비는 디 흠 애먹었
우다.

표준어

김현정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순녀 이 집은 죽어지는세로 사는 건가, 전세로 사는 건가?

김현정 올해는 죽어지는세로 살고, 새해에는 저희에게 팔아달
라고 했어요.

고순녀 그냥 여기 살 거면 친구간이 되어도 걱정 없겠네.

김현정 예. 처음에는 친구간이 아니라 집 빌리는 데 좀 애먹었
어요.



서히 풀기

올리 - 올해

풀다 - 팔다

기냥 - 그냥

이디 - 여기, 이곳

엇다 - 없다

체얌 - 처음

빌다 - 빌리다

디 - 데, 곳

흐꼼 - 좀, 조금



알아 두기

신구간 신구간은 지상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이나 변소를 수리해도 좋다는 ‘손 없는 날’로 알려졌다. 절기상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에 해당되는데,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기간에 주로 이사를 했다.

죽어지는세 ‘연세(年貰)’를 가리킨다. 제주도에서는 1년 단위로 임대료, 임차료를 주고받는 풍속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다달이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글세보다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죽어지는세가 보편화되어 있다.

2. 모리 오일장이난 흥번 강 봐

제주도

이순주 성님, 배친 어디서 사민 좋으코마썸?

진영애 배친 무사?

이순주 김치나 돔아 보카 허연마썸.

진영애 모리 오일장이난 흥번 강 봐. 갑도 헐허고 싱싱할 거라.

표준어

이순주 형님, 배추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진영애 배추는 왜?

이순주 김치나 담가 볼까 해서요.

진영애 모래 오일장이니 한번 가 봐. 값도 싸고 싱싱할 거야.



서취 풀기

배치 - 배추

무사 - 왜

김치 - 김치

둠다 - 담그다

모리 - 모레

흔번 - 한번

갑 - 값

헐허다 - 헐하다

싱싱허다 - 싱싱하다



살아 두기

성님 표준어 '형님'에 대응하는데 표준어의 '형'은 제주어에서는 구개음화되어 '상'으로 쓰인다. '성님'이라는 호칭은 손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예) 성님, 흔저 읍서.(형님, 어서 오세요.)

오일장 제주도 내 오일장(오일시장)은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고성 오일시장, 한림 민속 오일시장, 중문 오일시장, 대정 오일시장, 표선 오일시장 등이 있다. 장이 서는 날이 다른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다.

3. 미깡 종내기가 잘도 합디다양?

제주도

조형규 이디 완 보난 미깡 종내기가 잘도 합디다양?

양춘석 기주게. 요조금은 하도 하 노난 다 튼내지도 못헤여.

조형규 빗나긴 험디다만, 흥썰썩 상 먹어봐사쿠다.

양춘석 경헤여. 이디 살멍 맛 좋은 거라도 하영 먹어사주.

판문점

조형규 여기 와서 보니까 굴 종류가 아주 많던데요?

양춘석 그렇지. 요즘은 너무 많아서 다 떠올리지도 못해.

조형규 비싸긴 하던데, 조금씩 사서 먹어 봐야겠어요.

양춘석 그렇게 해. 여기 살면서 맛 좋은 거라도 많이 먹어야지.



서회 풀기

이디 - 여기, 이곳
미깡(외래어) - 귤
종내기 - 종류

요조금 - 요즘
하다 - 많다
튼내다 - 떠올리다

빗나다 - 비싸다
헛쓸씩 - 조금씩
하영 - 많이

4. 이디 마농 농스 하영 허지양?

제주어

고순녀 우리 밭디서 난 마농 흥쭈 먹어 봐.

이순주 아이고, 삼춘 고맙수다. 이디 마농 농스하영 허지양?

고순녀 기주게.

이순주 제주선 또 무시것덜 밭농스로 하영 험니까?

고순녀 당근도 허곡게, 브로콜리도 허곡 유명한 게 족앗어?

표준어

고순녀 우리 밭에서 난 마늘 좀 먹어 봐.

이순주 아이고, 삼춘 고맙습니다. 여기 마늘 농사 많이 하죠?

고순녀 그렇지.

이순주 제주에선 또 어떤 것들 밭농사로 많이 해요?

고순녀 당근도 하고, 브로콜리도 하고, 유명한 게 적어?



농가의 마늘 수확 모습



거휘 풀기

밭 - 밭

마농 - 마늘

헉쌀 - 좀, 조금

삼춘 - 11쪽 참조

농스 - 농사

하영 - 많이

무시것 - 무엇

덜 - 들(복수)

밭농스 - 밭농사

족다 - 적다

5. 바당 직했이란 막 멍심혜사메

제주어

고순녀 오늘 줌녀덜 물에 드는 날이난 해녀탈의장 즈꿋디 강 보카이?

이순주 그디 혼번 가 보구정 헛인디 잘 뻬우다.

고순녀 으름인 줌녀덜이 바당 직했이란 막 멍심혜사메.

이순주 요자기 갯굿이 강 보말이나 잡아 보카 허는디 호루라기 불멍 나가렌 헛디다게.

고순녀 소라영 전복이영 키와 부난 줌녀덜이 츠레 정허멍 망 뵈주게.

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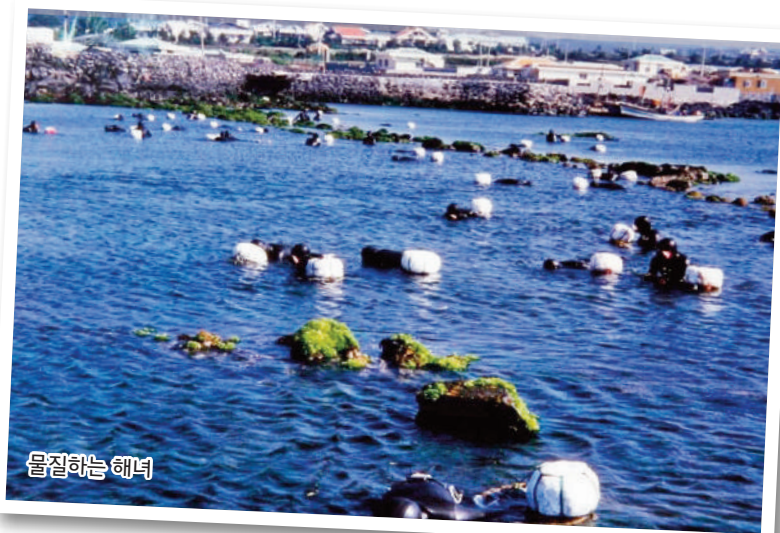
고순녀 오늘 해녀들 물에 드는 날이니 해녀탈의장 옆에 가서 볼까?

이순주 거기 한번 가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고순녀 여름엔 해녀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어서 아주 명심해야 해.

이순주 얼마 전에 갯가에 가서 고둥이나 잡아 볼까 하는데 호루라기 불면서 나가라고 하던데요.

고순녀 소라와 전복을 키우고 있어서 해녀들이 순서를 정해서 망을 보고 있어.



물질하는 해녀



어휘 풀기

좁녀 - 해녀

덜 - 들(복수)

쫓갓디 - 옆에, 곁에

옴름 - 여름

직허다 - 지키다

맹심허다 - 명심하다

요자기 - 요사이의 어느 때

갯굿 - 갯가

보말 - 고등

차례 - 차례, 순서



알아 두기

좁녀 제주에서 '좁녀, 좁네[瀾女]'는 해녀로 통칭한다. 제주 좁녀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다밭을 일터로 삼는 대표적인 직업 여성이다.

보말 보말은 표준어 고등에 해당되며,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그메기', 제주시 지역에서는 '보말'이라 한다. 죽과 국의 재료가 되며 간식으로 삶아 먹기도 한다.

6. 어멍헌 것덜 질황 풀아?

제주어

최명희 나 퀘기 사례 장에 갓당 오크라.

진영애 강 맛 좋은 거 하영 사당 먹어.

최명희 이디도 바당에서 나는 거 질황 푸는 것덜 하?

진영애 이젠 질황 푸는 것덜 하영 먹었주.

최명희 어멍헌 것덜 질황 풀아?

진영애 광어 곱은 것덜게. 이딧 사름덜신디도 풀곡, 놈의 나라
에도 풀곡.

표준어

최명희 난 생선 사러 시장에 갔다 올래.

진영애 가서 맛 좋은 거 많이 사다 먹어.

최명희 여기도 바다에서 나는 거 양식해서 파는 것들이 많아?

진영애 이젠 양식해서 파는 것들 많이 먹지.

최명희 어떤 것들 양식해서 팔아?

진영애 광어 같은 거. 여기 사람들한테도 팔고 수출도 하고.



어휘 풀이

궤기 - 고기[魚·肉]

하영 - 많이

이디 - 여기, 이곳

바당 - 바다

질루다 - 기르다

폴다 - 팔다

하다 - 많다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놈 - 남[他人]

7. 질룬 거 사당 먹으민 돼주

제주어

최기성 철수 아빤, 어땡 허코? 으름 돼난 것산디 우리 아덜 막 심이 엇덴.

장성철 게민 전복 사당 죽 썰 맥여 봐봐.

최기성 전복은 너미 비쌉 사 먹어져?

장성철 잡앙 온 거 말앙 질룬 거 사당 먹으민 돼주. 맛은 경 차 이 엇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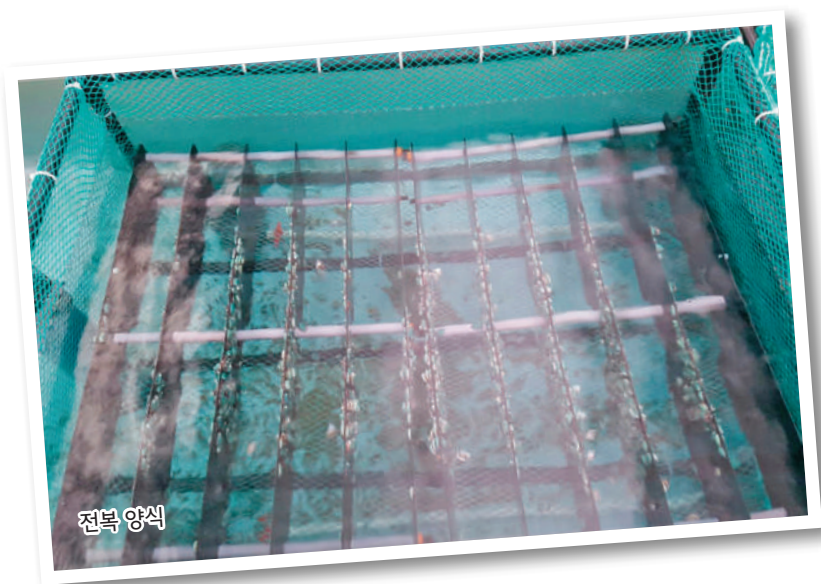
표준어

최기성 철수 아빠, 어떻게 하지? 여름이 돼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아주 힘이 없다고 하네.

장성철 그럼 전복 사다가 죽 썰서 먹여 봐.

최기성 전복은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 있을까?

장성철 잡아 온 거 말고 양식한 거 사다 먹으면 되지. 맛은 그렇게 차이 없어.



어휘 풀이

아방 - 아버지, 아빠

어떻 - 어떻게

으름 - 여름

돼다 - 되다

아덜 - 아들

심 - 힘

엇다 - 없다

게민 - 그럼, 그러면

멕이다 - 먹이다

너미 - 너무

8. 막걸리 공장 끝은 것덜은 봐지메

제주도

송민재 이딘 돌아댕겨 봐도 공장덜은 하영 안 보입디다.

양춘석 하영은 엇주마는 막걸리 공장 끝은 것덜은 봐지메.

송민재 기우짜? 공장 족으난 사름덜이 일헐 디도 족지양?

양춘석 아멩해도 경허주.

표준어

송민재 여긴 돌아다녀 봐도 공장들은 많이 안 보이던데요.

양춘석 많이는 없지만 막걸리 공장 같은 것들은 볼 수 있어.

송민재 그래요? 공장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일할 데도 적지요?

양춘석 아무래도 그렇지.



서회 풀기

이디 - 여기, 이곳

돌아댕기다 - 돌아다니다

덜 - 들(복수)

하영 - 많이

엇다 - 없다

굴다 - 같다

족다 - 적다

사름 - 사람

일허다 - 일하다

아멩헤도 - 아무래도

9. 육짓사람덜도 완 하영 출렸어

제주도

조형규 오늘은 차 몰앙 이디저디 막 귀경허레 텡겻우다.

고순녀 잘도 좋앗이큰게?

조형규 예게. 겐디 펜션이영 식당덜 잘도 들어섯입디다.

고순녀 사람덜 하영 오는 관광지난 아멩해도 해주게. 육짓사람덜도 완 하영 출렸어.

표준어

조형규 오늘은 차 몰고 여기저기 막 구경하러 다녔어요.

고순녀 아주 좋았겠네?

조형규 그럼요. 그런데 펜션이랑 식당들이 아주 많이 들어섰던데요.

고순녀 사람들 많이 오는 관광지라 아무래도 많지. 육짓사람들도 와서 많이 차렸어.



여러 풀이

돌다 - 몰다

이디저디 - 여기저기

귀경허다 - 구경하다

맹기다 - 다니다

잘도 - 아주, 매우

겐디 - 그런데

하영 - 많이

아멩헤도 - 아무래도

하다 - 많다

출리다 - 차리다

10. 이거 한번 불러 봅서

제주어

김현정 이거 한번 불러 봅서. 나 거 사명 삼춘 거 하나 샅우다.

오성미 화장품인게? 고마왕 어떻 허코?

김현정 커피 농스 행 난 걸로 멘들앙 푸는 거옌마썸.

오성미 게메, 이젠 농스짓영 난 걸로 무시거 멘들앙 푸는 거 하
텐 허멍이?

김현정 예, 그런 거 하마썸.

표준어

김현정 이거 한번 불러 보세요. 제 거 사면서 삼춘 거 하나 샅
어요.

오성미 화장품이네? 고마워서 어떻게 하지?

김현정 커피 농사 해서 난 걸로 만들어 파는 거라던데요.

오성미 그러게, 이젠 농사지어서 난 걸로 뭘 만들어서 파는 거
많다면서?

김현정 예, 그런 거 많아요.



커피 열매를 이용하여 생산한 화장품
(사진 제공: 김영한 님)



사진 제공: 김영한 님



어휘 풀이

흔번 - 한번

볼르다 - 바르다

삼춘 - 11쪽 참조

흐나 - 하나

어평 - 어떻게

농스 - 농사

멘들다 - 만들다

폴다 - 팔다

무시거 - 뭐

하다 - 많다



Ⅲ.

제주의 자연과 환경

1. 검은오름이나 강 보게마씀

제주시

김현정 오늘 노는 날이메, 검은오름이나 강 보게마씀.

진영애 경허게. 어떻 가코?

김현정 그디가 조천읍 선흘리에 시난, 시간이 흐쓸 걸릴 겨우다.

진영애 나사 심들 거 시냐? 느가 운전허멍 심들주.

김현정 걱정 맙서.

표준어

김현정 오늘은 쉬는 날이니, 검은오름에나 가서 보시죠.

진영애 그러자. 어떻게 갈까?

김현정 거기가 조천읍 선흘리에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진영애 나야 힘들 게 있니? 네가 운전하면서 힘들지.

김현정 걱정 마세요.



서휘 풀기

어떻 - 어떻게

그디 - 거기, 그곳

시다 - 있다

흐썰 - 좀, 조금

심들다 - 힘들다

느 - 너, 네

운전허다 - 운전하다



알아 두기

제주 세계자연유산 2007년에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검은오름용암동굴계 등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제주 세계자연유산’ 또는 ‘세계자연유산 제주’ 등으로 불리고 있음.

2. 제주 곶자왓 도립공원?

제주어

박민수 넬 어디 갈 거봐?

장성철 어디 안 갈 거여. 무사?

박민수 곶자왓에 대해영 알앙 오랜 허난, 그디 흥쭈 돌아다 줍서.

장성철 경허라. 어디 가코? 교래 휴양림도 싯곡, 동백동산도 싯곡, 제주 곶자왓 도립공원도 싯곡.

박민수 제주 곶자왓 도립공원? 그디 가 보게마썸.

장성철 경허라. 게민 넬 조반 먹영 열 시까장만 집이 오라.

박민수 예.

표준어

박민수 내일 어디 가실 거예요?

장성철 어디 안 갈 거야. 왜?

박민수 곶자왓에 대해서 알아 오라고 하니까,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장성철 그러자. 어디로 갈까? 교래 휴양림도 있고, 동백동산도 있고, 제주 곶자왓 도립공원도 있고.

박민수 제주 곶자왓 도립공원? 거기 가 봐요.

장성철 그러자. 그럼 내일 아침밥 먹고 열 시까지만 집에 오너라.

박민수 예.



어휘 풀이

무사 - 왜

그디 - 거기, 그곳

헉쓸 - 좀, 조금

들다 - 데리다

싯다 - 있다

게민 - 그럼, 그러면



알아 두기

귤자왈 표준어 ‘숲’ 또는 ‘수풀’(1.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꼭 들어찬 것. 2. 풀, 나무, 덩굴 따위가 한데 엉킨 것.)에 대응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수풀’을 뜻하는 ‘귤(귤의 잘못)’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을 합성한 ‘귤자왈(귤자왈의 잘못)’을 쓰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귤’은 ‘귤’, ‘귤자왈’은 ‘귤자왈’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주 지질공원 2010년에 세 곳의 세계자연유산과 수월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서귀포층, 천지연폭포 등을 포함한 아홉 곳이 ‘제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음. 그 뒤에 귤자왈과 우도, 비양도 등 세 곳이 추가된 열두 곳이 ‘제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3. 그딘 어떻게 디라?

제주어

양춘석 저 사람은 생물권보전지역이엔 헌 거 들어 봤어?

최기성 예, 나도 삼 년 전이사 쉼소깍 신 효돈천허곡, 그 우티 신 영천을 가 봤우다.

양춘석 그딘 어떻게 디라?

최기성 저 돈내코엔 헌 내가 영천이곡양, 그 알녁이 효돈천입 주.

양춘석 게난, 그런 거 시난 보전헌텐 허는 거라?

최기성 예, 그딘 으라 식물이영 동물이영 시난 경허는 거렌마썸.

표준어

양춘석 저 사람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한 말 들어 봤어?

최기성 예, 나도 삼 년 전에야 쉼소깍이 있는 효돈천하고, 그 위에 있는 영천을 가 봤어요.

양춘석 거긴 어떤 데지?

최기성 저 돈내코라고 하는 내가 영천이고, 그 아래쪽이 효돈천 이에요.

양춘석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보전한다고 하는 건가?

최기성 예, 거기에는 여러 식물과 동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전 하는 거래요.



어휘 풀기

사람 - 사람

시다 - 있다

우티 - 위에

그디 - 거기, 그곳

어평헌 - 어떤

디 - 데, 곳

알넥 - 아래쪽

요라 - 여러



알아 두기

저 사람 표준어 '저 사람'에 대응하는 말이다. 제주어에서는 문맥 상황에 따라 '피인(彼人)'의 뜻인 '저 사람'의 뜻으로도 쓰이고, '상대방(相對方), 상대편(相對便), 상대자(相對者)'의 뜻(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 짝을 이루는 사람)으로도 쓰인다.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2002년에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의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영천·효돈천의 천연기념물, 문섬·섬섬·범섬 등의 세 개 부속 섬 일대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

4. 습지렌 허멍 보전했우게

제주도

진영애 요즘은 못데 곶은 디도 흙불로 개발허민 안 뵈텐 허멍 양?

장성철 경 했우다. 습지엔 허멍예, 보전했우게. 람사르 습지렌 헌 말 들어 납디가?

진영애 그거 머짜?

장성철 물영아리허곡, 물장오리허곡양, 람사르 습지엔 허멍 보전했우게.

진영애 그디 문딱, 굼부리에 물 곶랑 이신 디구나게.

장성철 예게, 그 물 곶랑 이신 딜 습지렌 허멍 보전했우게.

표준·1

진영애 요즘은 못 같은 데도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된다면서요?

장성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습지라고 하면서 보전하고 있어요. 람사르 습지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진영애 그게 뭔데요?

장성철 물영아리하고, 물장오리하고, 람사르 습지라고 해서 보전하고 있어요.

진영애 거긴 모두 분화구에 물 고여 있는 곳이구나!

장성철 예,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습지라고 하면서 보전하고 있어요.



서회 풀기

못데 - 못

굴다 - 같다

디 - 데, 곳

흙불로 - 함부로

뒤다 - 되다

경 - 그렇게

머 - 뭐, 무엇

몬딱 - 모두

굼부리 - 분화구

굴르다 - 고이다

이시다 - 잇다



알아 두기

제주 람사르 습지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한 곳을 람사르 습지라고 함. 2006년 10월에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2008년 10월에 물장오리오름 습지가, 2011년에 동백동산 습지가, 2015년에 숨은물 벙디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됨.

5. ㄹ오리오름이엔 허는 거주

제주어

조형규 저건 무신 오름이파?

고순녀 저거? 전인 견월악이렌 헛주마는, 이젠 ㄹ오리오름이엔 허는 거주.

조형규 요즘 지도에 개월이오름이엔 허는 거구나게.

고순녀 맞다게. 우린 ㄹ오리오름이렌 헛인디, 젊은 사름덜은 견월악, 견월악 헨게.

조형규 용강 사름덜은 ㄹ오리오름이렌 헛디다.

고순녀 경헌디, 지도엔 개월이오름으로 써 불곡, 한자론 견월악(犬月岳)이렌 써 분 거주게.

표준어

조형규 저건 무슨 오름이에요?

고순녀 저거? 전에는 견월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ㄹ오리오름이라고 하는 거지.

조형규 요즘 지도에 개월이오름이라 하는 거구나!

고순녀 맞아. 우린 ㄹ오리오름이라고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견월악, 견월악 하던데.

조형규 용강 사람들은 ㄹ오리오름이라고 하던데요.

고순녀 그런데, 지도에는 개월이오름으로 써 버리고, 한자로는 견월악(犬月岳)이라고 써 버린 거지.



큰오리오름



서히 풀기

무신 - 무슨, 어떤

오름오름 - 산, 뫼

전인 - 전엔, 전에는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경헌디 - 그런데



알아 두기

오름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의 산(山)이나 '뫼'의 뜻으로 '오름>오름'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 한편 다른 지역의 산이나 뫼의 뜻으로 '메'나 '미'가 쓰이고, 한자 화한 봉(峰)이나 산(山), 악(岳) 등도 쓰이고 있음. 제주도 전역에는 400여 개의 오름이 있음.

6. 세미나 세밋물이엔 허주

제주어

김현정 이 물은 머엔 곶읍니까?

고순녀 세미나 세밋물이엔 곶는 물이주.

김현정 제주도선 물이렌도 허곡 세미엔도 험니까?

고순녀 경허주. 서울말론 샘이엔 허는디, 제줏말론 세미나 세밋물이엔 허주.

김현정 토산리 가민 거슨세미도 싯곡, ㄴ단세미도 잇인디양?

고순녀 싯주. 세미가 솟앙 바당드레 흘르민 ㄴ단세미엔 허곡, 한락산드레 흘르민 거슨세미엔 허주.

표준어

김현정 이 물은 뭐라고 해요?

고순녀 샘이나 샘물이라고 하는 물이지.

김현정 제주도에서는 물이라고도 하고 샘이라고도 해요?

고순녀 그렇지. 서울말로는 샘이라고 하는데, 제줏말로는 세미나 세밋물이라고 하지.

김현정 토산리에 가면 거슨세미도 있고, ㄴ단세미도 있는데요?

고순녀 있지. 샘이 솟아서 바다로 흐르면 ㄴ단세미라 하고, 한라산으로 흐르면 거슨세미라 하지.



어휘 풀기

머 - 뭐, 무엇

곧다 - 말하다

바당 - 바다

세미 - 샘

싯다 - 있다

흘르다 - 흐르다

세밋물 - 샘물

잇다 - 있다

한락산 - 한라산



알아 두기

물·세미 제주에서는 땅속이나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이나 샘물을 ‘세미·세밋물’ 또는 ‘물’이라고 부름. 따라서 제주도 여러 곳에서 솟아나는 샘을 ‘○○세미’ 또는 ‘○○물’이라고 함. ‘거손세미’는 거슬러 흐르는 샘, ‘낙단세미’는 바르게 흐르는 샘을 이름.

7. 굴이영 궤영, 어디 가민 잇우과?

제주어

조형규 돌아뎡기당 보난 굴이렌 허는 디도 싯곡, 궤옌 헨 디도 싯디다.

양춘석 이디선 짚숙헌 디궤라 굴이렌 허곡, 앞숙헌 딘 궤옌 헤여. 켤 바우로 뒤영 짚으지 안헨 디고.

조형규 이 동네선 굴이영 궤영, 어디 가민 잇우과?

양춘석 굴은 엇곡, 궤옌 헨 딘 하주.

조형규 어디마씨? 그딤 뒤옌 굴아마씨?

양춘석 요 내창에 가민 안궤옌 헨 디도 싯곡, 소주옌궤옌 헨 디도 싯곡게.

표준어

조형규 돌아다니다 보니 굴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궤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요.

양춘석 여기선 짚숙하게 뽕 데를 굴이라 하고, 얹게 뽕 데를 궤라고 해. 궤는 바위로 되어서 짚지 않은 데고.

조형규 이 동네에선 굴하고 궤는 어디 가면 있어요?

양춘석 굴은 없고, 궤는 많아.

조형규 어디요? 거긴 뭐라고 해요?

양춘석 요 내에 가면 안궤라는 데도 있고, 소주옌궤라는 데도 있고.



서회 풀기

돌아뎡기다 - 돌아다니다	얇숙허다 - 얇게 팬 상태이다	엇다 - 없다
디 - 데, 곳	바우 - 바위	하다 - 많다
싯다시다잇다 - 있다	뒤다 - 되다	곤다 - 말하다
짚숙허다 - 짚숙하다	짚으다 - 짚다	내창 - 내[川]



알아 두기

굴과 궤 제주에서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깊숙하게 팬 곳을 대개 ‘굴’이라 하고, 바위로 덮여 있거나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깊지 않은 곳을 ‘궤’라고 부름. ‘궤’는 지역에 따라 ‘궤야’라고도 부름.

8. 소섬, 소섬 험다게

제주도

송민재 저 섬은 머파?

양춘석 어느 거? 저거? 소섬이구나게. 전인 소섬이렌 헛저. 요
조금은 우도엔 허주마는.

송민재 아! 섬 소굽의 섬 우도엔 허는 디구나양?

양춘석 이녁도 알았인게. 베깃디서 보민 바당에 쉼가 누웁 신
거 답텐 허영 소섬이엔 험다게.

송민재 순 제줏말로 쉼렌 곧지 안헛니까?

양춘석 경 곧는디, 저 섬은 쉼섬이렌 곧지 안허곡, 소섬, 소섬
험다게.

표준어

송민재 저 섬은 뭐예요?

양춘석 어느 거? 저거? 소섬이네! 전에는 소섬이라고 했어. 요
즘은 우도라고도 하지만.

송민재 아! 섬 속의 섬 우도라고 하는 곳이네요?

양춘석 이녁도 알고 있네! 밖에서 보면 바다에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소섬이라고 하지.

송민재 순 제줏말로 쉼라고 하지 않아요?

양춘석 그렇게 하는데, 저 섬은 쉼섬이라 하지 않고, 소섬, 소
섬이라고 해.



성산오름에서 바라본 소섬



서히 풀기

머 - 무엇

전이 - 전에

요조금 - 요즘

소굽 - 속

베갯디 - 밖

바당 - 바다

쉐 - 소

시다 - 있다

답다 - 닳다

곧다 - 말하다



알아 두기

섬 제주도에 있는 섬은 예로부터 '○○섬'이라 불러 왔음. 그러다가 한자차용 표기가 굳어지면서 한자음으로 읽어 버리는 습관이 생겼음. 비양도는 '비영섬·비양섬', 마라도는 '마례섬', 가파도는 '더바섬'이라 했음.

이녁 듣는 이를 범상하게 부르거나 일컫기도 하고(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부르는 말), 조금 낮추어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문맥에 따라 표준어 '그대'나 '당신'(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정도에 대응된다.

9. 너구릴 지다리엔 됩니까?

제주어

송선우 이 굴은 무신 굴이꽈?

한동호 어? 이거 지다리굴이구나게.

송선우 지다리마씨?

한동호 오게, 지다리엔도 허곡, 오로엔도 허는디, 서울말은 너구리엔 허주.

송선우 너구릴 지다리엔 됩니까?

한동호 경허주. 오로엔도 허곡.

표준어

송선우 이 굴은 무슨 굴이에요?

한동호 어? 이건 너구리굴이네!

송선우 너구리요?

한동호 그래, 지다리라고도 하고, 오로라고도 하는데, 서울말로 너구리라고 하지.

송선우 너구리를 지다리라고 해요?

한동호 그렇게 하지. 오로라고도 하고.



무신 - 무슨, 어떤

지다리·오로 - 너구리



제주도 동물 이름 제주도 동물 이름 가운데는 다른 지역 말과 유다른 것이 많음. 가령 너구리를 ‘지다리’ 또는 ‘오로’라 하는 것, 지렁이를 ‘게우리’라 하는 것, 여치나 귀뚜라미를 ‘공중이·공쟁이’라 하는 것, 사슴벌레를 ‘접제기’라 하는 것 등이 있음.

10. 고사리삼마씀?

제주도 이야기

조현지 이건 머짜?

오성미 미시거? 아, 이거 고사리삼이엔 허는 건께.

조현지 고사리삼마씀?

오성미 오름 숲이나 곳 곶은 디 씻는 건디, 고사리 종내기주.

조현지 난 안 봐 낫우다.

오성미 경헛일 거여. 곳 소곶에나 물기 신 디 사는 거난. 곳 고사리엔도 허주께.

표준어

조현지 이건 뭐예요?

오성미 뭇데? 아, 이건 고사리삼이라고 하는 거네!

조현지 고사리삼이라고요?

오성미 오름 숲이나 숲 같은 곳에 있는 건데, 고사리 종류지.

조현지 전 본 적이 없어요.

오성미 그랬을 거야. 숲 속이나 물기가 있는 곳에 사는 거니까. 숲 고사리라고도 해.



어휘 풀기

머·미시거 - 뭐, 무엇

오름 - 산, 뒤편

곶 - 숲

곶다 - 같다

종내기 - 종류

소곶 - 속

시다 - 있다

디 - 데, 곳



알아 두기

제주도 식물 이름 제주도 식물 이름은 다른 지역의 말과 비슷한 것도 있고, 유
다른 것도 있음. 가령 때죽나무를 ‘족낭’, 팽나무를 ‘폭낭’, 소리나무를 ‘소리낭’이
라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말과 비슷한 것임. 풍개나무를 ‘검복낭’, 으름을 ‘줄갱
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른 것임.

11. 곰생이도 잘 생겨

제주도

오성미 요새 비가 자주 오는 거 보난 고사리장마 다했네.

최명희 게민 고사리 하영 나큰게마썸. 닐 동세백이 일어남 고사리 꺾으레 가사쿠다.

오성미 제주도 날씬 습기가 하난 집 안이 곰생이도 잘 생겨.

최명희 곰생이도 잘 피곡, 브름도 하영 부는 거 다했다.

오성미 장마 땀 마 내음살도 나난 창문을 자주 열어 주민 좋으메.

최명희 아, 경허난 장마 때 방문 올민 곰생잇내가 낫구나양.

표준어

오성미 요새 비가 자주 오는 걸 보니 고사리장마 같네.

최명희 그럼 고사리가 많이 나겠네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고사리 꺾으러 가야겠어요.

오성미 제주도 날씬 습기가 많아서 집 안에 곰팡이도 잘 생겨.

최명희 곰팡이도 잘 피고, 바람도 많이 부는 거 같아요.

오성미 장마 땀 곰팡이 냄새도 나니 창문을 자주 열어 주면 좋아.

최명희 아, 그래서 장마 때 방문 열면 곰팡이 냄새가 낫군요.



습기를 머금은 제주 들판(사진 제공: 강봉래 님)



서회 풀기

쫄주 - 자주

게민 - 그림, 그러면

하영 - 많이

닐 - 내일

동세백 - 이른 새벽, 새벽

꺾다 - 꺾다

하다 - 많다

곰생이 - 곰팡이

벗름 - 바람

마 - 장마

내음살 - 냄새

올다 - 열다



알아 두기

고사리 꺾기 제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사리철이 되면 고사리를 꺾으러 다녔다. 이때에 맞춰 봄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를 ‘고사리장마’라고 부른다. 고사리를 꺾어도 하루가 지나 비가 오면 다시 고사리가 자라므로, 일명 ‘고사리밭에 가면 손쉽게 꺾을 수 있었다.’

12. 태풍 왔덴 했어

제주도

현소영 영미 어멍, 마당이 고치덜 들여놔사크라.

김현정 무사?

현소영 태풍 왔덴 했어.

김현정 기? 이딘 태풍 즈주 오지이?

현소영 경혜 낫인디 요샌 흐쉴 덜헌 거 닳아 뵈어.

표준어

현소영 영미 엄마, 마당에 고추들 들여놔야겠어.

김현정 왜?

현소영 태풍이 온다고 하네.

김현정 그래? 여긴 태풍이 자주 오지?

현소영 그랬었는데 요샌 좀 덜한 거 같아.



어휘 풀기

어멍 - 어머니, 엄마

고치 - 고추

덜 - 들(복수)

무사 - 왜

기 - 그래

이디 - 여기, 이곳

쫌쫌 - 자주

헛썰 - 좀, 조금

덜허다 - 덜하다



IV.

제주의 풍속과 언어

1. 풋감낭 아니라게

제주주어

- 한동호** 우리 우연팠디 이신 낭 무시건 중 알아지크라?
송만재 잘 몰르くだ. 낭섭이 흐꿈 큰 거 보난 목련낭인가양?
한동호 풋감낭 아니라게. 채암 뵈어?
송만재 예. 게믄 삼춘넌 이 감 탕 먹엿우과?
한동호 아니라. 익기 전이 풋감을 탕 감물 들이는 디 썬.
송만재 삼춘 입은 옷도 감물 들인 겨우파?

표준어

- 한동호** 우리 텃밭에 있는 나문 어떤 나무인지 알겠어?
송만재 잘 모르겠어요. 나뭇잎이 조금 큰 걸 보니 목련나무인가요?
한동호 풋감나무잖아. 처음 봐?
송만재 예. 그럼 삼춘넌 이 감을 따서 드세요?
한동호 아니야. 익기 전에 풋감을 따서 감물을 들이는 데 사용해.
송만재 삼춘 입은 옷도 감물을 들인 건가요?



어휘 풀이

우연пат - 텃밭

이시다 - 있다

낭 - 나무

중 - 줄(의존 명사)

몰르다 - 모르다

낭섭 - 나뭇잎

헝곰 - 좀, 조금

체암 - 처음

게민 - 그럼, 그러면

삼춘 - 11쪽 참조

타다 - 따다

디 - 데, 곳

살아 두기

풋감낭 제주어 ‘풋감’은 제주도 토종 감을 가리키며, ‘낭/남’은 표준어 ‘나무’에 대응한다. ‘풋’은 ‘아주 작은’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다.

갈옷 제주 사람들의 대표적인 노동복인 갈옷은 제주지역에서 자라는 풋감으로 염색하여 만들었다. 여름이 되면 풋감을 따서 즙을 만들고, 그 즙을 이용하여 여 옷감을 염색해 옷을 만들어 입었다.

2. 자리물회 멍글 중 모르는디양

제주어

오성미 이추록 더운디 머에 밥 먹었어?

이순주 시원하게 물웨냉국 먹었우다.

오성미 요새 곱으민 자리물회가 맛 좋을 건디게.

이순주 자리물회 멍글 중 모르는디양.

오성미 ㄴ만 시라 보저. 우리 집더레 오민 멍그는 법 곱아 주주.

이순주 고맙수다. 자린 지정만 먹어 봤우다마는양.

표준어

오성미 이렇게 더운데 뭐에 밥 먹어?

이순주 시원하게 오이냉국 먹고 있어요.

오성미 요즘엔 자리돔물회가 맛있을 텐데.

이순주 자리돔물회는 만드는 법을 모르는데요.

오성미 가만히 있어 보라. 우리 집으로 오면 만드는 법을 말해 줄게.

이순주 고맙습니다. 자리돔은 조려서만 먹어 봤습니다만.



자리돔축제



자리물회



어휘 풀기

이추록 - 이렇게

머 - 뭐, 무엇

물웨 - 오이, 노각

굴다 - 갈다

맹글다 - 만들다

중 - 줄(익존 명사)

꺾만 - 가만

시다 - 있다

굳다 - 말하다



알아 두기

자리물회 자리돔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어류이며, 주로 초여름부터 어획하여 음식 재료로 쓰인다. 자리돔은 물회, 구이, 조림, 젓갈 등의 식재료로 쓰이는데, 자리물회는 여름철 제주도의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3. 우시 갈 거라

제주어

송민재 마을회관에서 잔치 준비 했었게, 삼춘네 조케 잔치 아니파양?

고순녀 맞아. 잇날 식으로 뽕국도 뽕글 거렌 허난 끝이 강 보게.

송민재 게민 뽕국도 얻어먹곡, 부름씨도 해 안네쿠다.

고순녀 잔치 아싯날부터 남자 어른덜은 녁둥베기도 허멍 놀주게.

송민재 조케 잔칫날 삼춘은 무신 일 맡읍디가?

고순녀 친정 고모난 영식이 아방이영 우시 갈 거라.

표준어

송민재 마을회관에서 잔치 준비 하고 있던데, 삼춘네 조카 잔치지요?

고순녀 맞아. 옛날 방식으로 모자반국도 만들 거라고 하니 같이 가 보자.

송민재 그럼 모자반국도 얻어먹고, 심부름도 해 드리죠.

고순녀 잔치 전날부터 남자 어른들은 옷놀이기도 하면서 놀아.

송민재 조카 잔칫날 삼춘은 무슨 일 맡으셨어요?

고순녀 친정 고모니까 영식이 아버지하고 상객으로 참석할 거야.



어휘 풀이

조케 - 조카

잇날 - 옛날

몹죽 - 모자반국

멩글다 - 만들다

같이 - 같이

부름씨 - 심부름

안네다 - 드리다

아싯날 - 전날

어룬 - 어른

덜 - 들(복수)

넉동베기 - 옷놀이

삼춘 - 11쪽 참조

무신 - 무슨, 어떤

우시 - 상객

살아 두기

가문잔치 제주도에서는 혼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 전날 '가문잔치', 다음 날 '사돈잔치'를 치른다. 가문잔치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잔치 절차를 점검하고 의논하며, 잔치 음식을 먹는 날이다. '사돈잔치'는 양가 사돈끼리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의례를 가리킨다.

4. 오늘 조문 가도 어떻 안허여

제주어

양춘석 아기어멍, 셔? 부녀회장네 집이 장 낮이난 혼디 강 보
게.

이순주 장례식장은 어디파?

양춘석 병원 장례식장이렌 허난 끝이 갈 사름 신가 알아보켜.

이순주 오늘 강 봐도 돼마썸?

양춘석 기여게. 닐이 일포주마는, 오늘 조문 가도 어떻 안허여.

이순주 재기 출리쿠다.

표준어

양춘석 아기엄마, 있어? 부녀회장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같이
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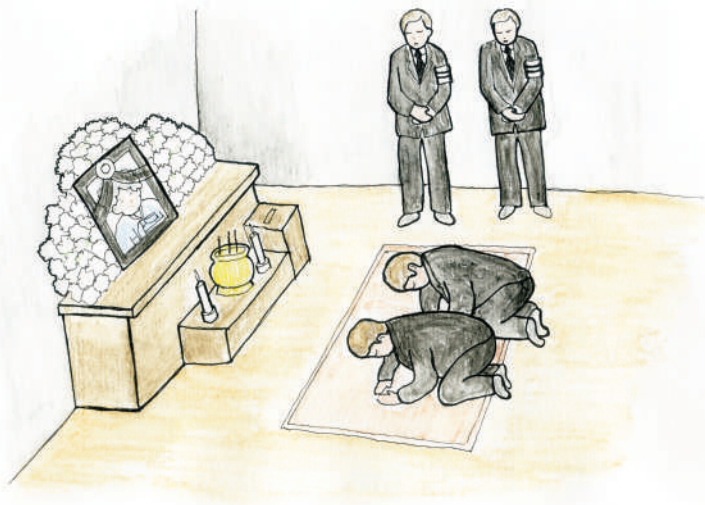
이순주 장례식장은 어디예요?

양춘석 병원 장례식장이라 하니 같이 갈 사람이 있나 알아볼게.

이순주 오늘 가 봐도 돼요?

양춘석 그래. 내일이 일포지만, 오늘 문상 가도 괜찮아.

이순주 빨리 준비할게요.



서회 풀기

어멍 - 어머니, 엄마

시다 - 있다

장 - 초상

훈디 - 함께, 같이

굴이 - 같이

빙원 - 병원

사름 - 사람

오널 - 오늘

뉘다 - 되다

널 - 내일

재기 - 빨리

출리다 - 차리다, 준비하다



알아 두기

일포 일포는 장례를 치르기 하루 전날을 가리키는데, 3일장을 할 경우 둘째 날에 해당된다. 제주도에서는 주로 일포날 조문을 가는 풍속이 있어서, 초상이나 면 친척과 지인들에게 일포 날짜를 알려 준다.

5. 예펜삼춘 잘 아난 그레 안네쿠다

제주어

양춘석 지용이 잔치 때 부준 어떻 허젠 했어?

송만재 나사 예펜삼춘 잘 아난 그레 안네쿠다.

양춘석 것도 좋주마는 지용이영도 친허난 그디도 헤살 거여.

송만재 잔치 부준 부모안티 허는 거 아니우짜?

양춘석 이넉 말이 맞아. 경헌디 이디선 결혼 당사자신디도 허메.

송만재 경허난 이딘 겹부주가 잇텐 헛 말이구나양.

표준어

양춘석 지용이 결혼 축의금은 어떻게 하려고 해?

송만재 저야 여자삼춘 잘 아니까 거기 드리려고요.

양춘석 그것도 좋지만 지용이하고도 친하니 거기도 해야 할 거야.

송만재 결혼 축의금은 부모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양춘석 이넉 말이 맞아. 그런데 여기선 결혼 당사자에게도 줘.

송만재 그래서 여긴 겹부조가 있다는 말이네요.



서히 풀기

부주 - 부조

어떻 - 어떻게

예편 - 여자

삼춘 - 11쪽 참조

그레 - 그쪽으로

안네다 - 드리다

그디 - 그 사람, 그분

이넉 - 59쪽 참조

이디 - 여기, 이곳



알아 두기

겹부주(겹부조) 경조사 때 전달하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부조라고 한다. 제주도에는 겹부주가 있어 다른 지방 풍속과 다르다. 결혼식 때는 혼주와 신랑, 신부 당사자에게 축의금을 전달하며, 초상 때는 상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의금을 전달하는데 이를 겹부주라고 한다.

6. 모듬벌초 잇날부터 허는 풍속이라

제주어

한동호 제주에 살당 보민 모듬벌초렌 허는 말 들어질 거라.

송만재 넘은헤에 켜당덜 모다들엉 벌초허는 거 봤우다.

한동호 알앗신게이? 모듬벌초 잇날부터 허는 풍속이라.

송만재 চে암인 모듬벌초 헌덴 허난 어떤 건고 궁금헝디다게.

한동호 이디선 모듬벌초 안 가민 문중 어른덜신디 막 옥먹어.

표준어

한동호 제주에 살다 보면 모듬벌초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송만재 지난해에 친척들 모여서 벌초하는 거 봤어요.

한동호 알고 있네? 모듬벌초는 옛날부터 하는 풍속이야.

송만재 처음엔 모듬벌초 한다니까 어떤 건가 궁금했어요.

한동호 여기선 모듬벌초 안 가면 문중 어른들께 아주 혼나.



어휘 풀기

넘은해 - 지난해, 작년

괘당 - 친척

모다들다 - 모여들다, 모이다

잇날 - 옛날

체암 - 처음

이디 - 여기, 이곳

어룬 - 어른

덜 - 들(복수)



알아 두기

모듬벌초 모듬벌초는 그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 산소를 벌초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 8월 1일을 모듬벌초 하는 날로 정했었으나 지금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그 날을 따로 정한다.

7. 문딱 켤당이우파?

제주어

양춘석 궂사 거리 안이 사는 삼춘이 이레 들어와 뵈게?

최기성 아무도 안 왔우다. 켤디양, 난 제궂사름이 아니난산디 삼춘이나 켤당이렌 헌 말이 흐뭇 어색허우다게.

양춘석 우린 잇날부터 동네 어룬덜안틴 삼춘이렌 불렀어.

최기성 게민 동네 사름덜은 문딱 켤당이우파?

양춘석 식게멩질 혼디 먹는 사름덜을 켤당이렌 허여.

최기성 나도 이디 오래 살았이민 삼춘이나 켤당이렌 헌 말을 확확 굴아질 거라양.

표준어

양춘석 방금 거리 안에 사는 삼춘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 같던데?

최기성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요, 전 제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삼춘이나 켤당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네요.

양춘석 우린 옛날부터 동네 어른들께는 삼춘이라 불렀어.

최기성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친척인가요?

양춘석 제사명절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은 친척이라 해.

최기성 저도 여기 오래 살고 있으면 삼춘이나 켤당이라는 말을 얼른 할 수 있겠지요?



어휘 풀이

갯사 - 방금

삼춘 - 11쪽 참조

이레 - 이쪽으로

겐디 - 그런데

사름 - 사람

웬당 친척

흐끔 - 좀, 조금

잇날 - 옛날

어룬 - 어른

덜 - 들(복수)

게민 - 그럼, 그러면

몬딱 - 모두

식게 - 제사

멩질 - 명절

훈디 - 함께, 같이

이디 - 여기, 이곳

확확 - 빨리, 얼른



알아 두기

식게멩질 먹다 제주도에서는 제사와 명절 등에 참석하는 것을 ‘~을 먹다’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제삿집에 참석할 때는 ‘식게 먹으레 간다.(제사 지내러 간다.)’, 명절이 다가오면 ‘멩질 먹어서 한다.(차례 지내야 한다.)’ 등으로 표현한다.

8. 육짓말광 하영 튼날 거여

제주어

송선우 아버지! 학교서 제줏말 배왕 오랜 험디다.

송만재 ㄱ만 시라. 나도 잘 모르난, 율집이 삼춘신디 강 들어 보
게.

송만재 삼춘! 싯과? 제줏말 발음광 글즈에 대해영 곶아 줍서.

오성미 나도 말로 곶을 충은 알주만, 잘 몰른다게. 경헌디이, 말
을 들이엔 허곡, 달을 들이엔 허곡게.

송선우 경헌 건 학교서도 배왔우다.

오성미 별은 벨이나 빌이엔 허곡, 영 혼 것이 육짓말광 하영 튼
날 거여.

표준어

송선우 아버지! 학교에서 제줏말 배워 오래요.

송만재 가만 있어 봐. 나도 잘 모르니까, 옆집 삼춘께 가서 여
쭈 보자.

송만재 삼춘! 계세요? 제줏말 발음하고 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성미 나도 말로 할 줄은 알지만 잘 몰라. 그런데 말을 물이라
하고, 달을 들이라 하고.

송선우 그런 것은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오성미 별은 벨이나 빌이라 하고, 이런 건 육짓말과 많이 다를
거야.



어휘 풀이

아부지 - 아버지, 아빠

학교 - 학교

배우다 - 배우다

가만 - 가만

옆집 - 옆집

삼춘 - 11쪽 참조

듣다 - 묻다

있다 - 있다

글쭙 - 글자

말다 - 말하다

충 - 줄(의존 명사)

몰르다 - 모르다

말 - 말[馬]

달 - 달[月]

별빌 - 별[星]

타나다 - 다르다

알아 두기

제주어 ‘오’와 ‘으’, ‘어’와 ‘어’ 제주어에서는 파리를 ‘프리’, 모자반을 ‘므음·므’, 호미를 ‘굴갱이’라고 하는데, 젊은층에서는 점차 ‘오’와 ‘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 ‘하다’는 이미 노년층에서도 ‘하다’로 많이 실현되고 있음.

9. 지역마다 말이 특난다

제주어

조형규 성님! 딸이 제줏말 곺아 도렌 허는디, 어떻 곺아 주민 웰 건고마씨?

장성철 머 어려울 거 시냐? 매민 재열이렌 허곡, 귀뚜라민 공 중이, 문언 물꾸럭이렌 헌덴 허민 뉘주.

조형규 매민 썰이나 재옌도 헌덴 허명양? 자리옌도 허곡?

장성철 뜬 디션 경 곤넨 헤라. 물꾸럭도 문게나 뭉게옌도 허곡 게. 제주서도 지역마다 말이 특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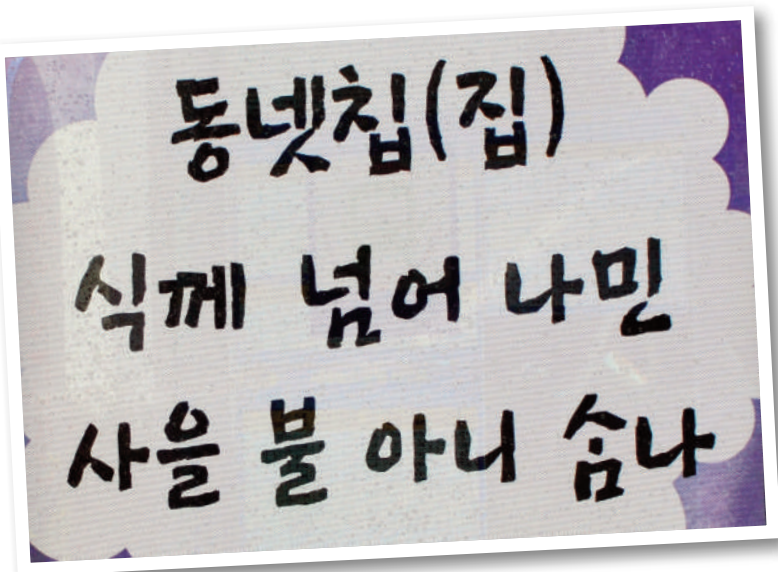
표준어

조형규 형님! 딸이 제줏말을 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 주면 될까요?

장성철 뭐 어려울 게 있나? 매미는 재열이라고 하고, 귀뚜라미는 공중이, 문어는 물꾸럭이라고 한다면 되지.

조형규 매매는 썰이나 재라고도 한다던데요? 자리라고도 하고?

장성철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데. 문어도 문게나 뭉게라고 하고. 제주에서도 지역마다 말이 달라.



제주어 광고: '동넛칩'은 '동네칩'으로, '식께'는 '식게'로 써야 한다.



어휘 풀이

똥 - 딸

곤다 - 말하다

어땡 - 어떻게

똥다 - 되다

머 - 뭐, 무엇

재열·젤·재·자리 - 매미

공중이 - 귀뚜라미, 여치

물꾸럭·문게·뭉게 - 문어

똥 - 다른

디 - 데, 곳



알아 두기

제주어의 지역 차이 제주어의 일부 어휘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거나 유다르게 실현됨. 가령 '호미'를 '굴갱이', '굴게기', '굴각지', '굴게'라 한다든가, '소라'를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라 하는 것이 그것임.



V.

제주 생활 즐기기

1. 연극 보러 갓단 왔어

제주도

현소영 영 더운디 어디 갓단 오멘?

김현정 연극 보러 갓단 왔어.

현소영 어디 즈미난 연극 허멘?

김현정 응, 문예회관에서 허는 연극 뵈.

현소영 그디 갓단 왔구나. 그디서 연주회 끝은 것도 즈주 허메.

김현정 기? 게걸랑 연주회 헐 때랑 끝이 가게.

표준어

현소영 이렇게 더운데 어디 갔다 와?

김현정 연극 보러 갔다 와.

현소영 어디 재미있는 연극 해?

김현정 응, 문예회관에서 하는 연극 뵈어.

현소영 거기 갔다 오는구나. 거기서 연주회 같은 것도 자주 해.

김현정 그래? 그럼 연주회 할 땐 같이 가자.



문예회관



서히 풀기

영 - 이렇게

조미나다 - 재미나다, 재미있다

그디 - 거기, 그곳

굴다 - 같다

조주 - 자주

기 - 그래

게걸랑 - 그럼, 그렇거든

굴이 - 같이, 함께



알아 두기

공연 시설 연극, 연주회,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로는 문예회관(정식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제주 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 전당 등이 있다.

2. 그 사람 이름 딴 미술관이 쏜주

제주도

진영애 그림 보래 안 갈타?

김현정 갑제기 무신 그림마썸?

진영애 이중섭이엔 헌 화가가 이디서 살아 난 건 알았주이?

김현정 예게.

진영애 그 사람 나건 디 백 년 뉘난 그림 곁은 거 전시했젠 헤
라.

김현정 기파? 어디서마썸?

진영애 그 사람 이름 딴 미술관이 쏜주.

표준어

진영애 그림 보러 안 갈래?

김현정 갑자기 무슨 그림요?

진영애 이중섭이란 화가가 여기서 살았던 건 알지?

김현정 그림요.

진영애 그분이 태어난 지 백 년이 돼서 그림 곁은 거 전시한다
고 하던데.

김현정 그래요? 어디서요?

진영애 그분 이름을 딴 미술관이 있지.



어휘 풀기

갑제기 - 갑자기

무신 - 무슨, 어떤

이디 - 여기, 이곳

사름 - 사람

백 - 백(百)

됴다 - 되다

굴다 - 같다

싯다 - 잇다



알아 두기

이중섭 미술관 화가 이중섭의 예술 세계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중섭 미술관에서는 올해(2016) 이 화가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름'이라는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다.

3. 사진 찍으레 텅겼우다

제주어

장성철 선우 아방, 사진기 좋은 거 신 거 닻안게?

송만재 예, 그거 들렁 이디저디 사진 찍으레 텅겼우다.

장성철 놈 찍은 거 귀경 므녀 허는 것도 좋지 안허카?

송만재 경 안해도 김영갑이엔 현 어른이 찍은 거 강 뿡 완마썸.

장성철 그 어른 사진은 귀경시켜 주는 디가 이신 거 닻안게이?

송만재 예, 나도 그디 갓단 온 겍주.

표준어

장성철 선우 아빠, 사진기 좋은 거 있는 거 같던데?

송만재 예, 그거 들고 여기저기 사진 찍으러 다녀요.

장성철 다른 사람이 찍은 거 구경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송만재 그렇지 않아도 김영갑이라는 분이 찍은 거 가서 보고 왔어요.

장성철 그분 사진은 구경시켜 주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송만재 예, 저도 거기 갔다 온 거예요.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여러 풀기

아방 - 아버지, 아빠

들르다 - 들다

이디저디 - 여기저기

땡기다 - 다니다

놈 - 남[他人]

귀경 - 구경

먼저 - 먼저

어른 - 어른, 분

귀경 - 구경

디 - 데, 곳

이시다 - 있다



알아 두기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제주도에 정착하여 병마와 싸우면서도 제주의 오름, 들, 판 등의 자연을 카메라 앵글에 예술적으로 담아내었던 김영갑 선생이 2002년 개관한 사진 전시관이다.

4. 도서관이도 즈주 가 낫우다

제주도

양지용 무시거 했우과?

이순주 책 익엌우다.

양지용 책 익는 거 좋아했구나양?

이순주 예. 부산서 살 땐 도서관이도 즈주 가 낫우다.

양지용 이디도 도서관덜 시난 강 빌어당 익읍서.

이순주 경험게마썸. 이것도 제주도서관이 강 빌영 온 거마썸.

표준어

양지용 뭐 해요?

이순주 책 읽어요.

양지용 책 읽는 거 좋아하나 봐요?

이순주 예. 부산서 살 땐 도서관에도 자주 갔었어요.

양지용 여기도 도서관들 있으니 가서 빌려다 읽으세요.

이순주 그렇데요. 이것도 제주도서관에 가서 빌려 온 거예요.



어휘 풀이

무서거 - 뭐, 무엇

책 - 책

익다 - 읽다

조주 - 자주

이디 - 여기, 이곳

시다 - 있다

빌다 - 빌리다



알아 두기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내 공공 도서관만 소개하면 한라도서관,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한경도서관, 동부도서관, 성산일출도서관, 애월도서관, 삼매봉도서관, 서부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조천읍도서관, 중앙도서관, 서귀포기적의도서관, 표선도서관 등이 있다.

5. 제주도 귀경은 하영 허연?

제주도

고순녀 제주도엔 왕 살건 디 얼마나 뻐어?

최명희 혼 삼 년 뻐우다.

고순녀 게민, 제주도 귀경은 하영 허연?

최명희 엇우다. 저 동펜이 이신 성읍민속마을이렌 현 디만 가 뵈우다.

고순녀 성읍민속마을은 머 특별헤 뵈어?

최명희 예. 초집이영 진진현 올레영 잇날 제주 마을을 상상헤 집디다.

표준어

고순녀 제주도에 와서 산 지 얼마나 뻐어?

최명희 한 삼 년 뻐어요.

고순녀 그럼, 제주도 구경은 많이 하고?

최명희 아니예요. 저 동쪽에 있는 성읍민속마을이라는 데만 가 뵈어요.

고순녀 성읍민속마을은 뭘 특별헤 보여?

최명희 예. 초가랑 아주 긴 올레는 옛날 제주 마을을 상상하게 하던데요.



어휘 풀기

흔 - 대략

뒤편 - 되다

게민 - 그림, 그러면

귀경 - 구경

동편 - 동쪽

이시다 - 있다

디 - 데, 곳

머 - 뭐, 무엇

특별허다 - 특별하다

초집 - 초가

진진허다 - 기나길다

잇날 - 옛날

막을 - 마을



살아 두기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 6월 12일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1423) 정의현청이 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제주도의 민속 유물과 유적에 속하는 전통가옥, 성담, 성문 등이 보존되어 있다.

올레 마당에서 큰길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가리킨다. 중세국어 올래[門]에서 올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올레길은 '올레와 '길'의 합성어이며, 길의 의미가 중첩되었다.

6. 발담 축제도 했어

제주도

송민재 이디 밧담덜은 흥뽀 약허게 다와진 거 닐아.

양지용 경헤 배도 그거 쉰 브름 불어도 ㄱ딱 안 헌다.

송민재 기라? 담 답는 무신 특별헌 방법이 싣구나?

양지용 기주. 난 아멩 봐도 우리 조상덜 생각이 신기허여.

송민재 게민 이딴 사름덜은 막 자랑허구정 허큰게?

양지용 경허난 녀은헤부터 밧담 축제도 했어.

표준어

송민재 여기 밧담들은 좀 약하게 쌓인 거 같아.

양지용 그래 보여도 그거 쉰 바람이 불어도 까딱 안 해.

송민재 그래? 담 쌓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구나?

양지용 그렇지.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조상들 생각이 신기해.

송민재 그럼 여기 사름들은 아주 자랑하고 싣겠네?

양지용 그래서 작년부터 밧담 축제도 하고 있어.



어휘 풀기

이디 - 여기, 이곳

밭담 - 밭담

흐쭈름 - 좀, 조금

답다 - 쌓다

세다 - 세다

부름 - 바람

깁깁 - 까딱

무신 - 무슨, 어떤

특별허다 - 특별하다

잇다 - 있다

아멩 - 아무리

덜 - 들(복수)

생각 - 생각

넘은헤 - 지난해

알자득기

제주 밭담 축제 제주 밭담은 201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의해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제주 밭담 축제는 제주 사람의 삶과 지혜가 담긴 밭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축제로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축제 제주도에서는 제주 도새기 축제, 제주 왕벚꽃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우도 소라 축제,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최남단 방어 축제, 제주 들불축제, 보목 자리돔 축제 등 계절과 지역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

7. 한라산 둘렛길도 걸어 봐

제주도

한동호 이 녀석은 이디 완 올렛길은 걸어 봤주이?

최기성 예게, 벌써 다섯 코스 가 봤우다.

한동호 게건 이제랑 한라산 둘렛길도 걸어 봐.

최기성 사름덜 그디 즈주 골안게 나도 가 봐사쿠다.

한동호 게민 언제 나영 강 걸어 보게.

표준어

한동호 이 녀석은 여기 와서 올렛길은 걸어 봤지?

최기성 예, 벌써 다섯 코스 가 봤어요.

한동호 그럼 이제 한라산 둘렛길도 걸어 봐.

최기성 사람들이 거기 자주 말하던데 저도 가 봐야겠어요.

한동호 그럼 언제 나랑 가서 걸어 보지.



한라산 둘레길(사진 제공: 강봉래 님)



사진 제공: 강봉래 님



서히 풀기

이녁 - 59쪽 참조

이디 - 여기, 이곳

다섯 - 다섯

계건·계민 - 그럼, 그러면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그디 - 거기, 그곳

쫌쫌 - 자주

굳다 - 말하다



알아 두기

한라산 둘레길 한라산 중턱에 사려니숲길,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등으로 구성된 숲길

8. 이녁도 해안도로 알았구나

제주어

이순주 오늘 제주도 귀경이나 허당 오젠 했우다.

한동호 게난, 어디 가 보젠 했어?

이순주 바당 즈깃디로 쪽 돌아가명 질 빠 낫젠 허명양?

한동호 이녁도 해안도로 알았구나.

이순주 강 브름도 췌곡 맛 좋은 것도 먹곡 허젠마썸.

표준어

이순주 오늘 제주도 귀경이나 하다 올까 해요.

한동호 그럼, 어디 가 보려고 해?

이순주 바닷가로 쪽 돌아가면서 길을 빠 놓았다면서요?

한동호 이녁도 해안도로 알고 있네!

이순주 가서 바람도 쐬고 맛 좋은 것도 먹으려고요.



서회 풀기

오널 - 오늘

귀경 - 구경

바당 - 바다

즈깁다 - 겹, 겹에

질 - 길

빠다 - 빼다

이녁 - 59쪽 참조

븜 - 바람

췌다 - 췌다

9. 자전거도로에도 한번 가 봐

제주도 이야기

양지용 자전거 꺾엉 어디 갔어?

송만재 심심허연 동네 흔 바쿠 돌앙 오젠.

양지용 시간 이실 때랑 자전거도로에도 한번 가 봐.

송만재 자전거도로?

양지용 이디저디 해안도로에 강 보민 자전거도로도 끝이 낭 있어.

표준어

양지용 자전거 끌고 어디 가?

송만재 심심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려고.

양지용 시간 있을 땐 자전거도로에도 한번 가 봐.

송만재 자전거도로?

양지용 여기저기 해안도로에 가 보면 자전거도로도 같이 나 있어.



서휘 풀기

꿏다 - 꿏다

심심허다 - 심심하다

훈 - 한

바쿠 - 바퀴

이시다 - 잇다

훈번 - 한번

이디저디 - 여기저기

굴이 - 같이

잇다 - 있다



VI.

더불어 살기

1. 펜안덜 헛지양?

제주어

김현정 어드레 감이우파?

고순녀 아이고, 영미 어멍이구나게. 생선 물린 거나 흐쭈 사 보젠 나왔어.

김현정 펜안덜 헛지양?

고순녀 기여게. 기영저영 살아텡겔저.

김현정 삼춘네 집이 혼번 놀레 가젠 허멍도 잇어 붙어젓우다.

표준어

김현정 어디 가세요?

고순녀 아이고, 영미 엄마구나! 옥돔 말린 거나 좀 사려고 나왔어.

김현정 편안들 하셨지요?

고순녀 그래.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김현정 삼춘네 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서도 자주 잇어 버렸네요.



어휘 풀기

어드레 - 어디로

생선 - 옥돔

몰리다 - 말리다

흐썸 - 좀, 조금

편안 - 편안

덜 - 들(복수)

기영저영 - 그럭저럭

살아뎡기다 - 살아가다

삼춘 - 11쪽 참조

한번 - 한번



알아 두기

생선 표준어 '생선'과 형태적 뿌리가 같은 제주어 '생선'은 표준어에서는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표준국어대사전)의 뜻으로 쓰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옥돔'이라는 특정 생선만을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된다. 지역에 따라 솔나니, 솔 내기, 오토미 등으로 형태가 달리 쓰이기도 한다.

2. 흔저 들어와

제주어

김현정 영수 어멍, 잇어?

현소영 누게짜?

김현정 나 영미 어멍.

현소영 응, 흔저 들어와. 게난 밥은 먹언?

김현정 밥 줌안 흔 직 먹언 말았어.

현소영 게민 감저 삶은 거 흔쥬 먹어 봐.

표준어

김현정 영수 엄마, 있어?

현소영 누구세요?

김현정 나 영미 엄마.

현소영 응, 어서 들어와. 그런데 밥은 먹었어?

김현정 밥 말아서 한 술 먹고 말았어.

현소영 그럼 고구마 삶은 거 좀 먹어 봐.



어휘 풀이

어멍 - 어머니, 엄마

누게 - 누구

흔저 - 어서

좁다 - 말다

흔 - 한

직 - 모금, 손갈

게민 - 그림, 그러면

감저 - 고구마

숯다 - 삶다

헉썰 - 좀, 조금



알아 두기

감저와 지슬 제주 지역에서 '감저'는 표준어 '고구마'와 대응되는 의미로, '지슬'은 표준어 '감자'와 대응되는 의미의 어휘로 사용된다.

3. 영 만나전 반갑수다

제주어

고순녀 어디 외방서 읍디가?

박진호 예, 우리 조케나 혼번 보카 헨 왔우다.

고순녀 조케, 누게마썸?

박진호 선우 아방 알아지쿠가?

고순녀 아이고, 우리 읍집이우다게.

박진호 기우파? 영 만나전 반갑수다.

고순녀 나도 반갑수다. 난 그자 이 동네에서 물질허멍 사는 사람이우다.

표준어

고순녀 어디 외지서 오셨어요?

박진호 예, 우리 조카나 한번 볼까 해서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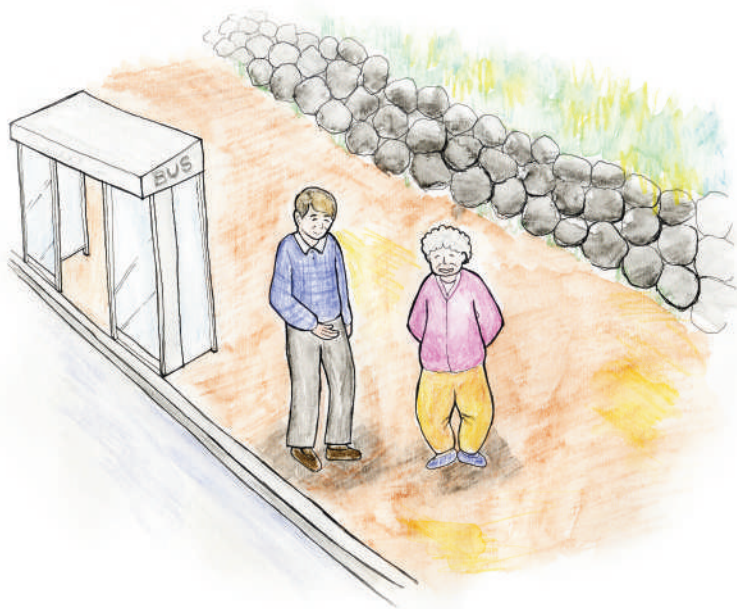
고순녀 조카, 누구요?

박진호 혹시 선우 아빠 아세요?

고순녀 아이고, 우리 옆집에 살아요.

박진호 그래요?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가워요.

고순녀 저도 반가워요. 전 그저 이 동네에서 물질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회 물기

외방 - 외지

조케 - 조카

흔번 - 한번

누게 - 누구

아방 - 아버지, 아빠

옆집 - 옆집

영 - 이렇게

그자 - 그저

사름 - 사람

4. 알넉칩이 이사 온 사름이우다

제주어

김현정 잇우과?

박영자 예, 이레 들어옵서. 어떻헐 읍디가?

김현정 난 저디 알넉칩이 이사 온 사름이우다.

박영자 기파?

김현정 인사도 허곡 떡도 햅쫄 먹어 보셴 헐 왔우다.

박영자 게메, 난 누젠고, 헛우다.

표준어

김현정 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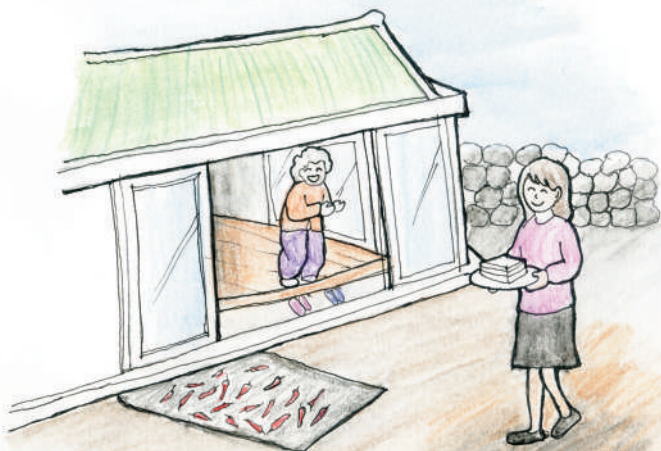
박영자 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김현정 전 저기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박영자 그래요?

김현정 인사도 드리고 떡도 좀 들어 보시라고 해서 왔어요.

박영자 그러게, 난 누군가, 했어요.



어휘 풀이

있다 - 있다

이레 - 이리로

저디 - 저기, 저곳

알넉칩 - 아랫집

사름 - 사람

헉썰 - 좀, 조금

누게 - 누구

5. 이 어른신디 왕 인스허여

제주어

박영자 선우 아방, 이 어른신디 왕 인스허여.

송만재 밥 먹으레 읍디가? 삼춘, 난 작년이 알동네 이사 완 살
앓우다.

강만길 경헛우짜?

박영자 이딘 나영 혼 동네서 끝이 컷주.

강만길 이제랑 질레서 봐지건 말도 곤곡 헛서.

송만재 예게. 꼭 인스허कु다.

표준어

박영자 선우 아빠, 이 어른께 와서 인사 드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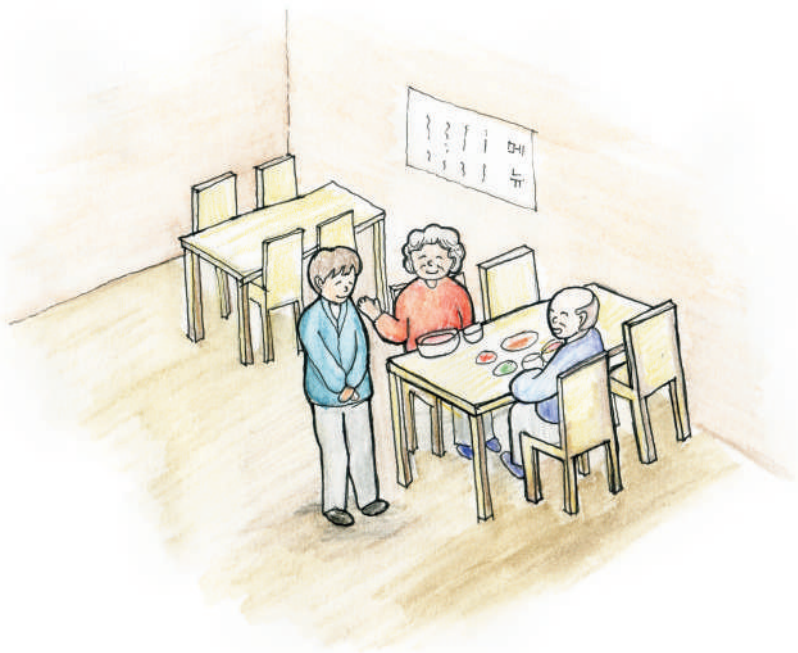
송만재 식사하러 오셨어요? 삼춘, 전 작년에 아랫동네 이사 와
서 살고 있어요.

강만길 그래요?

박영자 여긴 나랑 한 동네서 같이 컷지.

강만길 이젠 길에서 만나거든 말도 건네고 그래요.

송만재 예. 꼭 인사 드릴게요.



어휘 풀이

아방 - 아버지, 아빠

어른 - 어른

삼촌 - 11쪽 참조

알동네 - 아랫동네

이디 - 이 사람, 이분

훈 - 한

같이 - 같이

질레 - 길

글다 - 말하다

인스허다 - 인사하다

6. 책이나 익어 보카 허연마썸

제주어

오성미 책 들런 어디 감이라?

김현정 책이나 익어 보카 허연마썸.

오성미 무사 집이서 익주게?

김현정 육지서 완 사는 사름덜 모다정 책 익는 디가 잇덴 했우다.

오성미 게난, 그디 가 보젠?

김현정 예, 강 말도 곤곡 웃음도 허곡 좋을 거 님아마썸.

표준어

오성미 책 들고 어디 가?

김현정 책이나 읽어 볼까 해서요.

오성미 왜 집에서 읽지 그래?

김현정 육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 읽는 데가 있대요.

오성미 그럼, 거기 가 보려고?

김현정 예, 가서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서회 풀기

책 - 책

들르다 - 들다

익다 - 읽다

무사 - 왜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모다지다 - 모이다

디 - 데, 곳

잇다 - 있다

그디 - 거기, 그곳

글다 - 말하다

7. 사름도 사귀곡 좋으큰게

제주어

한동호 땀 난 거 보난 운동허레 갓단 앓인게?

조형규 예, 족구허레 갓단 앓우다.

한동호 누게네영?

조형규 육지서 완 사는 사름덜이영마썸.

한동호 운동도 허곡 사름도 사귀곡 좋으큰게.

조형규 예. 끝나민 막걸리도 혼잔씩 허고마썸.

표준어

한동호 땀 난 거 보니 운동하러 갔다 오는 거 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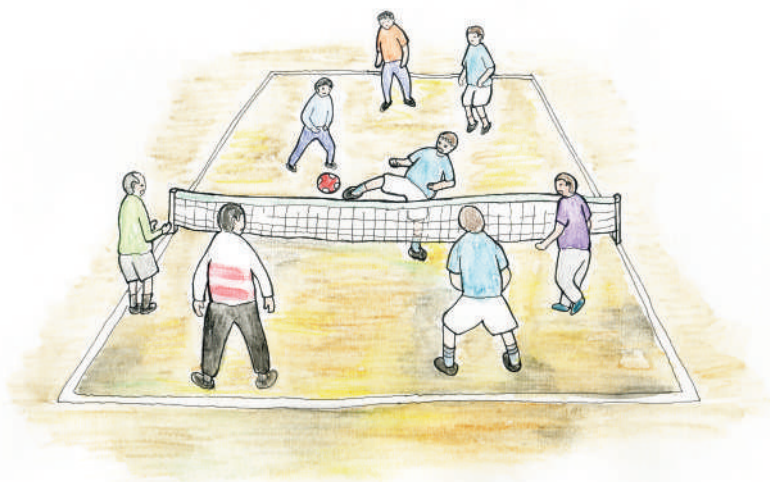
조형규 예, 족구하러 갔다 와요.

한동호 누구네랑?

조형규 육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하고요.

한동호 운동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좋겠네.

조형규 예. 끝나면 막걸리도 한잔씩 하고요.



서회 풀이

땀 - 땀

운동하다 - 운동하다

족구하다 - 족구하다

누게 - 누구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끝나다 - 끝나다

한잔 - 한잔

씩 - 씩

8. 게민 나도 흥번 가 보카?

제주어

김현정 스트레스도 풀곡 허게 춤추레 가카?

현소영 어디 말이고?

김현정 육지서 완 사는 사름덜이영 이딴 사름덜이영 가끔씩 모임 허주.

현소영 모영 무시거 해여?

김현정 음식도 노와 먹곡 춤도 추곡 허주.

현소영 즈미나큰게. 게민 나도 흥번 가 보카?

표준어

김현정 스트레스도 풀 겸 춤추러 갈까?

현소영 어디 말이야?

김현정 육지서 와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가끔씩 모임을 하지.

현소영 모여서 뭐 해?

김현정 음식도 나눠 먹고 춤도 춰.

현소영 재미있겠네. 그럼 나도 한번 가 볼까?



서회 풀이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가끔씩 - 가끔씩

노누다 - 나누다

무시거 - 뭐, 무엇

즈미나다 - 재미나다, 재미있다

게민 - 그럼, 그러면

흔번 - 한번

9. 머리핀이나 하나 상 오게

제주어

현소영 벼룩시장이 강 머리핀이나 하나 상 오게.

김현정 게메, 나도 한번 강 보구정 해라마는.

현소영 강 보게. 육지서 완 사는 사름덜이영 관광객덜이영 하영 봐지메.

김현정 이딴 사름덜도 가지 안해여?

현소영 가주게. 나 곁은 사름도 가곡 밋디서 난 거 폴레도 가곡.

표준어

현소영 벼룩시장에 가서 머리핀이나 하나 사서 오자.

김현정 그러게,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더라마는.

현소영 가 보자. 육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하고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김현정 여기 사람들도 가지 않아?

현소영 가지. 나 같은 사람도 가고 밧에서 난 거 팔리도 가고.



제주시 쿠팡을 세화리 벨롱장



서회 풀기

흐나 - 하나

흔번 - 한번

사름 - 사람

덜 - 들(복수)

하영 - 많이

굴다 - 같다

밧 - 발

플다 - 팔다



알아 두기

벼룩시장 제주에는 원래 벼룩시장이 없었고 이주민(정착 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벼룩시장은 이주민 간, 이주민과 제주도 토박이 사이의 소통과 화합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참고로 '벼룩'은 제주 지역에서는 '베룩'으로 쓰인다.

10. 나도 끼와 줍서양

제주어

오성미 오늘 시간 잊이민 우리 집이 와.

이순주 경험주. 먼 일 잊우과?

오성미 동네 친목 모이는 날이난 서로 인사도 허곡, 음식도 먹 곡 허여.

이순주 불러 줘 고맙수다. 난 머 ㄴ정 가코양?

오성미 기냥 왕 즈미나게 놀민 돼주. 이제랑 우리영 부녀회 활동도 해 보곡.

이순주 경 아녀도 부녀회 활동을 해 보고정 헛인디, 나도 끼와 줍서양.

표준어

오성미 오늘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

이순주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성미 동네 친목 모이는 날이니 서로 인사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해.

이순주 불러 줘서 고마워요. 전 뭘 갖고 갈까요?

오성미 그냥 와서 재미있게 놀면 되지. 이제 우리하고 같이 부녀회 활동도 해 보고.

이순주 그렇지 않아도 부녀회 활동을 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참여시켜 주세요.



어휘 풀이

오널 - 오늘

잇다 - 있다

먼 - 무슨

머 - 뭐, 무엇

꺾지다 - 가지다

기냥 - 그냥

죠티나다 - 재미나다, 재미있다

뒤다 - 되다

11. 제주 사난 제줏사름이주게

제주어

장성철 정월멧질 땐 이디 이실 거라?

화기성 식구덜이 다 이디 시난, 이디서 멧질힐 거.

장성철 멧질 뒷날 어른덜신디 합동세배 허난 그날랑 마을회관 더레 와.

화기성 우리 곁은 외지인도 초대해 줘 고마와. 참석허크라.

장성철 이녁도 제주 사난 제줏사름이주게.

화기성 경 생각해 주난 잘도 고마운게.

표준어

장성철 설날엔 여기 있을 거야?

화기성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어서, 여기서 차례를 지낼 거야.

장성철 설 다음날 어른들께 합동세배 하니까 그날은 마을회관으로 와.

화기성 우리 같은 외지인도 초대해 줘서 고마워. 참석할게.

장성철 이녁도 제주에 사니까 제주 사람이지.

화기성 그렇게 생각해 주니 너무 고마워.



어휘 풀이

정월명절 - 정월명절, 설날

이디 - 여기, 이곳

잇다시다 - 있다

어룬 - 어른

덜 - 들(복수)

골다 - 같다

사름 - 사람

잘도 - 매우, 아주

이녁 - 59쪽 참조



알아 두기

합동세배 세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례로 설날이 되면 친척집을 방문하여 세배를 드린다. 마을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던 풍속이 점차 합동세배로 바뀌고 있다.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배려한 것이다.



부록

제주어 길잡이

□ 조사

ㄱ라

표준어 ‘에게’ 정도에 대응하는 조사이다. 주로 ‘골다·골다^{ㄱ라}, 말하^다·말하^다^{ㄱ라}’ 등의 서술어와 호응하여 쓰인다.

예) 어멍 ㄱ라 골으라.(어머니께 말씀 드려라.)

ㄱ장

‘까지’로도 쓰이는데, 표준어 ‘까지’에 대응한다.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흔히 앞에는 시작을 나타내는 ‘부떠^(부터)나 출발을 나타내는 ‘서/이서’가 와서 짝을 이룬다.

또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거나 그 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다.

예) 서울서 제주ㄱ장 비영기로 혼 시간 걸려.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걸려.)

더레

‘드레’로도 쓰이고, 기원적으로 ‘ㅎ’을 가졌던 체언에 붙을 경우 ‘터레/트레’로도 쓰인다. 표준어 ‘(으)로’ 또는 ‘에’ 정도에 대응한다.

예) 집드레/집더레 감수과?(집으로 가세요?)

참고로 대명사 ‘어디’와 ‘드레’가 결합하면 ‘어드레’ 또는 ‘어디레’ 등으로 실현된다. ‘어드레’는 ‘어디’의 ‘디’가, ‘어디레’는 ‘드레’의 ‘드’가 탈락된 것이다.

예) 집 안트레/안터레 봐 두라.(집 안에 봐 뉘라.)

디

초소 부사격 조사이며, 표준어 ‘에’에 대응한다. 선행 체언의 받침이 ‘ㅅ’으로 끝날 때 쓰인다.

예) 밧디 강 일허게.(밭에 가서 일하자.)

한편, 기원적으로 ‘ㅎ’을 가졌던 체언에는 ‘티’가 붙기도 한다.

예) 지붕 우티 생이 앓았저.(지붕 위에 새가 앉았어.)

산디

표준어 ‘인지’(서술격조사 어간 ‘이-’ + 막연한 의문의 어미 ‘-ㄴ지’) 정도에 대응하는 뜻으로 쓰이는 조사이다.

예) 느산디 나산디 모르키어.(너인지 나인지 모르겠다.)

신디

표준어 ‘한테’나 ‘에게’에 대응하는데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대개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아방신디 골으라.(아버지께 말씀 드려라.)

안티

표준어 ‘한테’에 대응하는데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대개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이거 느안티 주마.(이거 너한테 줄게.)

(이)영

표준어 조사 ‘와/과’에 대응한다. 표준어에서는 받침 없는 말 뒤에서는 ‘와’, 받침 있는 말 뒤에서는 ‘과’가 쓰이는데, 제주어에서는 받침 없는 말 뒤에서는 ‘영’, 받침 있는 말 뒤에서는 ‘이영’이 쓰인다.

예) 아시영 영화 봤.(동생하고 영화를 봤어.)

이와 비슷한 조사로 ‘광’도 쓰이는데, ‘느광, 나광, 어멍광, 아방광’ 등과 같이 사용에 제약이 없다.

이

최소 부사격 조사로 쓰이며, 표준어 ‘에’에 대응된다. 최소격 조사 ‘이’와 ‘서’의 결합형인 ‘이서’는 표준어 ‘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예) 그 집이 있어?(그 집에 있어?)

집이서 쉬젠.(집에서 쉬려고.)

□첨사

계

확인, 단정의 의미로 쓰이는 첨사이다.

예) 날씬 막 좋은계계.(날씨는 아주 좋네.)

마쌌

표준어 보조사 ‘요’와 의미 및 기능이 유사하며, 단정의 의미가 있는 첨사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명사, 부사,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뒤에서 다양하게 실현된다. ‘마쌌/마씨/마시/마심’ 등 여러

형태로 쓰인다.

예) 오름마씀.(오름요.) / 오름마씨.(오름요.)
집이서마씀.(집에서요.) / 집이서마씨(집에서요.)
학교 가멘마씀.(학교에 가요.)

양

상대방을 부를 때, 동의를 구할 때, 명령이나 권유를 확고히 할 때 등에 쓰이는 첨사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을 갖고 있다.

예) 양, 이례 옵서.(이쪽으로 오세요.)
헝쌀 비싸우다양?(좀 비싸네요. 그렇죠?)
갑서양.(가세요.)

이

입버릇처럼 사용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할 때, 명령이나 권유를 확고히 할 때 등에 쓰이는 첨사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저이, 이디 잇게.(저기, 여기 있자.)
밥은 먹엇주이?(밥은 먹었지? 그렇지?)
가이.(가.)

□ 선어말어미

-았/었-

표준어 ‘-았/었-’에 대응하며, 과거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이다.

예) 어제 아시영 영화 봤어.(어제 동생하고 영화 봤어.)

-았/었/였-

표준어 ‘-고 있-’의 문법 기능과 같은 선어말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았-’, 음성 모음이면 ‘-었-’,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였-’이 붙는다.

예) 밥 먹었저.(밥 먹고 있어.)

이 선어말어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되고(먹었저^{머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ㅅ’이 연음되어 소리난다(값어^쌔).

한편, 이 선어말어미는 ‘-았/었/였-’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일부 자음 어미 앞에서 출현하며 종결어미는 예사소리로 발음된다.

예) 집이 감다?(집에 가니?)

-우/수-

상대높임의 기능을 지닌 선어말어미로, 표준어 ‘-습/ㅁ-’에 대응한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선어말어미 ‘-았/었-’과 ‘-았/었/였-’에는 ‘-우-’가 붙는다. 그리고 용언 어간의 끝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수-’가 붙는다.

예) 베풀기가 비싸우다.(배추가 비싸요.)

이 옷은 잘도 좋수다.(이 옷은 아주 좋습니다.)

-(으)크-

선어말어미 ‘-(으)크-’는 화자의 의지나 의도,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며, 표준어 ‘-겠-’에 대응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크-’,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크-’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는 ‘-으크-’는 실제 발화에서는 ‘-크’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난 밥먹으크라./먹크라.(난 밥 먹겠어.)

난 이거 사크라.(난 이거 사겠어.)

‘-(으)크’는 상대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우’와 결합하면 ‘-쿠’, 의문형 종결어미 ‘-아’와 결합하면 ‘-카’로 실현된다.

예) 학교에 가쿠다.(학교에 가겠어요.)

뭐 먹으카?(뭐 먹을까?)

□ 어말어미

-건 디

‘-건’은 표준어 관형형 어미 ‘-(으)ㄴ’, ‘디’는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의존명사 ‘지’에 대응한다. 어떤 일에 대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예) 서울 가건 디 삼년 댜어.(서울 간 지 삼년 댜어.)

-게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인다. 따라서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오늘랑 쉬게.(오늘은 쉬자.)

-(이)고

체언에 붙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형 어미로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의문사(어디, 무신, 누게 등)를 써서 그에 대한 정보를 요

구할 때 쓴다.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 체언에는 ‘-(이)고’, 받침 없는 체언에는 ‘-고’가 붙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 발화에서는 ‘-고’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어디 말이고?/말고?(어디 말이니?)

자인 누게고?(재는 누구니?)

-곡

연결어미 ‘-곡’은 두 가지 이상의 행위나 상태, 사실을 연결하는 표준어 연결어미 ‘-고’에 대응한다.

예) 밥도 먹곡, 말도 곤곡게.(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꽂

상대높임의 기능을 가진 의문형 종결어미이며, 상대높임의 선어말어미 ‘-우’를 동반하여 체언에도 붙을 수 있다.

끝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이우꽂?’,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우꽂?’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가 탈락된 모습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밥 먹엇우꽂?(식사 하셨어요?)

어거 빙떡이우꽂?/빙떡이꽂?(이거 빙떡이에요?)

얼마우꽂?/얼마꽂?(얼마예요?)

한편, 상대높임을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수’ 다음에는 ‘-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이 바당은 얼마나 짚수과?(이 바다는 얼마나 깊어요?)

-(으)ㄴ게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이는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표준어 감탄형 어미 ‘-네’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며, 주로 형용사 어간에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은게’, 받침 없는 어간과 받침 ‘ㄹ’인 어간에는 ‘-ㄴ게’가 붙는다.

‘-(으)ㄴ게’는 선행하는 자음과 결합하면 [-(으)ㅇ게]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으나, 쓸 때는 ‘-(으)ㄴ게’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 고사리장마 닮은게.(고사리장마 같네.)

날이 추운게.(날씨가 춥네.)

지레가 잘도 큰게.(키가 아주 크네.)

한편, 선어말어미 ‘-았-/었-, -았/엇’ 뒤에서 ‘-(으)ㄴ게’는 ‘-인게’로 실현된다. 곧 ‘보엿인게, 앓인게, 었인게’ 등은 ‘보이- + -었- + 은게, 오- + -았- + -은게, 었- + -은게’의 구성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실제 말에서는 [보엿신게/보엿싱게], [왓신게/왓싱게], [어신게/어싱게] 등으로 실현된다. 치찰음 ‘ㅅ’에 후행하는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한 경우 ‘보엿인게, 앓인게, 었인게’로 쓴다.

-(으)ㄴ디

배경이나 전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표준어 연결어미 ‘-(으)ㄴ데’에 대응한다. 이 어미는 형용사 어간에 붙는데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은디’, 받침 없는 어간과 받침 ‘ㄹ’인 어간에는 ‘-ㄴ디’가 붙는다.

예) 영 더운디 어떻 살멘?(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아?)

한편, 동사 어간에는 ‘-는디’, 체언에는 ‘-(이)ㄴ디’가 붙어 같은 기능

을 한다.

예) 밥은 잘 먹는다, 죽은 별로.(밥은 잘 먹는데, 죽은 별로.)

오늘 멧질인디 일허레 가멘?(오늘 멧절인데 일허러 가?)

이 어미에 선어말어미 ‘-앗/엇/엇-’, ‘-앓/엓/엓-’ 등이 선행하면 ‘-인디’의 형태로 쓰인다.

예) 우린 곤밥 먹엇인디, 느넌 보리밥 먹언?

(우린 쌀밥 먹었는데, 너흰 보리밥 먹었어?)

-(으)ㄴ디²

평서형 종결어미로 표준어 ‘-(으)ㄴ데’에 대응하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이 어미는 형용사 어간에 붙는데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은디’, 받침 없는 어간과 받침 ‘ㄹ’인 어간에는 ‘-ㄴ디’가 붙는다.

예) 요샌 날씨가 막 좋은디.(요샌 날씨가 아주 좋은데.)

이 어미는 동사 어간에는 ‘-는디’, 체언에는 ‘-(이)ㄴ디’의 형태로 붙어 같은 기능을 한다.

예) 아신 공뷔 잘 허는디.(동생은 공부 잘 하는데.)

오늘 우리 아방 식겐디.(오늘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으)ㄴ디³

의문형 종결어미로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낸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이 어미는 형용사 어간에 붙는데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은디’, 받침 없는 어간과 받침 ‘ㄹ’인 어간에는 ‘-ㄴ디’가 붙는다.

예) 날이 추운 거 닮은디?(날씨가 추운 거 같은데?)

동사 어간에는 ‘-는디’, 체언에는 ‘-(이)ㄴ디’가 붙어 같은 기능을 한다.

예) 술은 잘도 잘 먹는다?(술은 아주 잘 마시는데?)

이거 빙떡인다?(이거 빙떡인데?)

-(으)난/(이)난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하는 데 쓰는 연결어미이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으난’,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 서술격조사 ‘이-’에는 ‘난’이 붙는다. 표준어 ‘-(으)니’, ‘-(으)니까’, ‘-(이)니’, ‘-(이)니까’에 대응한다.

예) 기분 좋으난 일도 잘 돼어라.(기분이 좋으니까 일도 잘 되데.)

느가 성이난 참으라.(네가 형이니까 참아.)

이 어미는 선어말어미 ‘-았/었, -앗/엇’ 뒤에서는 ‘-이난’으로 실현된다.

예) 비 왔이난 우산 들렁 가라.(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 들고 가.)

-(으)ㄴ타

‘-(으)ㄴ따’로도 쓰이는데, 미래의 의문·물음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현대국어 ‘-겠느냐?’ 또는 ‘-(으)ㄴ래?’ 정도에 대응하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다음에는 ‘-을타/을따’,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ㄴ타/ㄴ따’가 붙는다.

예) 영화 보러 갈타/갈따?(영화 보러 갈래?)

-라

‘이다’, ‘아니다’의 어간이나 일부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서 사실을 서술하거나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이거 골쟁이라?(이거 호미야?)

그거 골쟁이라.(그거 호미야.)

-(으)라

명령형 종결어미로, 표준어의 ‘-아/어/여’, ‘-아라/어라/여라’에 대응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다음에는 ‘-으라’,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라’가 쓰인다. 상대 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밥 하영 먹으라.(밥 많이 먹어라.)

-(으)레

이는 동사 어간에 결합하여 목적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이며, 표준어 ‘-(으)러’에 대응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레’,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레’가 붙는다.

예) 고사리 케레 가멘.(고사리 캐러 가.)

-(으)멍

동시 나열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로 표준어 ‘-(으)면서’에 대응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멍’,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멍’이 붙는다.

예) 밥 먹으멍 숙제헤.(밥 먹으면서 숙제했어.)

-(으)메

용언 어간과 결합하여 화자의 경험적 판단에 의해 파악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을 서술할 때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이 ‘ㄷ’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으메’, 받침 ‘ㄷ’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메’가 쓰인다.

예) 민철인 짐치 잘먹으메.(민철이는 김치를 잘 먹어.)

-(이)메

체언에 붙어 이유나 원인, 배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연결어미이다. 끝 음절에 받침이 있는 체언에는 ‘-(이)메’, 받침이 없는 체언에는 ‘-메’가 붙는다.

예) 날은 추석이메 기냥 쉬게.(내일은 추석이니 그냥 쉬자.)

-(으)멘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이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표준어 의문형 어미 ‘-아/어/여, -니’ 정도로 해석된다. ‘-냐’보다는 좀 더 친밀한 느낌을 준다. ‘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다음에는 ‘-으멘’,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ㄷ’인 용언 어간 다음에는 ‘-멘’이 쓰인다.

예) 밥 먹으멘?(밥 먹니?)

-(으)민

조건, 가정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로 표준어 ‘-(으)면’에 대응한다. ‘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민’,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ㄷ’인 용언 어간에는 ‘-민’이 붙는다. ‘-(으)믄’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더우민 문 옵서.(더우면 문 여세요.)
비 오문 문 닫으라.(비가 오면 문 닫아라.)

-(으)ㅂ니까

상대높임의 기능이 있으며, 대체로 표준어와 형태, 기능, 의미가 동일하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읍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ㅂ니까?’가 쓰인다.

예) 이디 마늘은 비쌘니까?(여기 마늘은 비싸요?)

표준어와 차이점이 있다면,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습니까?’가 붙지 않고 ‘-(으)ㅂ니까?’가 붙는다는 점이다.

예) 가인 밥 잘 먹읍니까?(개는 밥을 잘 먹습니까?)

-(으)ㅂ디가

상대높임의 기능을 가진 의문형 종결어미이며, 표준어 ‘-았습니까?’에 해당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읍디가?’,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ㅂ디가?’가 붙는다.

예) 밥은 먹읍디가?(식사는 하셨어요?)

-(으)ㅂ디다

듣거나 경험한 사실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상대높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ㅂ디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ㅂ디다’가 붙는다. 표준어로는 ‘-던데요’ 정도로 풀이된다.

예) 드르에 사름덜이 합디다.(들에 사람들이 많던데요.)

-(-으)ㅂ서

상대높임의 기능을 가진 명령형 종결어미이며, 표준어 ‘-(으)십시오’에 대응한다. ‘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ㅂ서’,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ㄷ’인 용언 어간에는 ‘ㅂ서’가 붙는다.

예) 우리 집더래 옵서.(저희 집으로 오세요.)

-(-으)ㅂ주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이미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하거나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인데 상대높임의 기능이 있다. ‘ㄷ’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읍주’,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ㄷ’ 받침인 용언 어간에는 ‘ㅂ주’가 붙는다.

예) 철순 듯게기 잘 먹읍주.(철수는 돼지고기를 잘 먹어요.)

그 일은 나가 협주.(그 일은 제가 하지요.)

체언에는 ‘-(이)ㅂ주’가 붙어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표현한다.

예) 그건 골쟁입주.(그건 호미지요.)

-아/어/여¹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종결어미로 쓰이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아’, 음성모음이면 ‘-어’, ‘ㅎ다/히다(하다)’ 뒤에는 ‘-여’가 붙는다.

예) 연극 보러 갔단/갔당 앓어.(연극 보러 갔다 와.)

밥 먹었어.(밥 먹었어요.)

-아/어/여²

어떤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이며, 상대

높임의 기능은 없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아’, 음성모음이면 ‘-어’,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여’가 붙는다.

예) 밥 먹었어?(밥 먹었어?)

-아/어/여³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이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아’, 음성모음이면 ‘-어’,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여’가 붙는다.

예) 그디 앉아.(거기 앉아.)

흔저 들어와.(어서 들어와.)

-아라/어라/여라/라라

용언 어간 또는 ‘이다’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하는 뜻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아라’, 음성모음이면 ‘-어라’,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여라’가 붙는다. ‘이다’의 어간 뒤에서는 ‘(이)라라’로 실현된다.

예) 철순 밥 하영 먹어라.(철수는 밥을 많이 먹더라.)

미순인 손이 막 고와라.(미순이는 손이 아주 곱더라.)

그건 고사리라라.(그건 고사리더라.)

-아사/어사/여사

조건, 당위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로 표준어 ‘-아야/어야/여야’에 대응한다.

‘-아사’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어사’는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 ‘-여사’는 ‘ㅎ다/허다(하다)’ 뒤에 붙는다.

예) 사람은 잘 먹어서 건강한다.(사람은 잘 먹어야 건강해.)

-안/언/연¹

순차적 계기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로 대체로 표준어 ‘-고’에 해당된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 음성모음이면 ‘-언’,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연’이 붙는다.

‘-안/언/연’은 주로 완료된 동작을 표현하는 데 쓰이나 이와는 약간 다른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양/영/영’과 넘나들면서 쓰이기도 한다.

예) 밥먹언/먹영 왔우다.(밥 먹고 왔어요.)

-안/언/연²

표준어 ‘-(으)니’, ‘-아서/어서/여서’와 같이 이유나 원인을 뜻하는 연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 음성모음이면 ‘-언’,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연’이 붙는다.

예) 도와줘 고맙수다.(도와줘서 고마워요.)

-안/언/연³

표준어 ‘-았어/었어’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데 쓰인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 음성모음이면 ‘-언’, ‘ㅎ다/허다(하다)’ 뒤에는 ‘-연’이 붙는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어제 연극 봤.(어제 연극 봤어.)

밥 먹언.(밥 먹었어.)

일했연/허연.(일했어.)

-안/언/연⁴

문맥에 따라 표준어 ‘왔어/였어?’ 또는 ‘왔니/였니?’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어떤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 음성모음이면 ‘-언’, ‘ㄸ다/허다(하다)’ 뒤에는 ‘-연’이 붙는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연극 봤?(연극 봤어?)

밥 먹었?(밥 먹었어/먹었니?)

일 했?(일했어?)

-안게/언게/연게¹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서술하여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 배경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게’, 음성모음이면 ‘-언게’, ‘ㄸ다/허다(하다)’ 뒤에서 ‘-연게’가 붙는다.

예) 가인 궤기 하영 먹언게 막 심이 좋은게.(궤는 고기를 많이 먹더니 아주 힘이 좋네.)

-안게/언게/연게²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게’, 음성모음이면 ‘-언게’, ‘ㄸ다/허다(하다)’ 뒤에는 ‘-연게’가 붙는다.

예) 가인 밥 잘 먹언게.(그 앤 밥을 잘 먹던데.)

-안게/언게/연게³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문문에서 종결어미로 쓰인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게’, 음성모음이면 ‘-언게’,

‘헛다/허다(하다)’ 뒤에는 ‘-연게’가 붙는다.

예) 공부하는 거 다향게?(공부하는 거 같던데?)

-안다/언다/연다

선행 용언이 드러내는 행위의 완료 여부를 묻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다’, 음성모음이면 ‘-언다’, ‘헛다/허다(하다)’ 뒤에는 ‘-연다’가 붙는다. 상대 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숙제헛다?(숙제했니?)

-양/영/영¹

순차적 계기의 의미로 쓰이는 연결어미로 표준어 ‘-고’에 대응한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양’, 음성모음이면 ‘-영’, ‘헛다/허다(하다)’ 뒤에는 ‘-영’이 붙는다.

예) 쉬엄 공부허라.(쉬고 공부해./쉬고 나서 공부해.)

-양/영/영²

표준어 ‘-(으)니’, ‘-아서/어서/여서’와 같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안’, 음성모음이면 ‘-언’, ‘헛다/허다(하다)’ 뒤에는 ‘-연’이 붙는다.

예) 추웁 어떻 살코?(추워서 어떻게 살지?)

-엔

간접 인용 또는 직접 인용의 어미로 쓰인다. 제주어에서는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은 대부분 인용 어미 ‘-엔’에 의해 실현되는데 구체적인 모

습은 다음과 같다.

- ‘-다’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덴’으로 실현됨.

예) 밥 먹었다. → 밥 먹엇덴 헤라.(밥 먹었다고 하더라.)

- ‘-저’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젠’으로 실현됨.

예) 집이 값저. → 집이 값젠 험디다.(집에 간다던데요.)

- ‘-파’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펜’이나 ‘-겐’으로 실현됨.

예) 어디 값우파? → 어디 값우펜/값우겐 험디다.(어디 가냐고 하던데요.)

- ‘-(으)라’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으)렌’으로 실현됨.

예) 학교 가라. → 학교 가렌 졸읍디다.(학교 가라고 하던데요.)

- ‘-(으)ㅂ서’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으)ㅂ센’으로 실현됨.

예) 헛쓸 쉽서. → 헛쓸 쉽센 헤라.(좀 쉬시라고 하던데.)

- ‘-게’로 끝나는 말

인용 어미 ‘-엔’이 붙어서 ‘-겐’으로 실현됨.

예) 서울 가게. → 서울 가겐 험디다.(서울 가자고 하던데요.)

-저

용언이 나타내는 행위의 완료나 진행, 상태에 대한 단정의 의미를 드러낼 때 쓰이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집이 왔저.(집에 왔어.)

아이덜이 놀았저.(아이들이 놀고 있어.)

-젠¹

동사 어간에 붙어서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인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표준어 ‘-(으)러/(으)려고’ 정도에 대응한다.

예) 영화 보젠 나왔어.(영화 보러/보려고 나왔어.)

-젠²

동사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이 어미 자체로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으나 첨사 ‘마씀’ 등이 붙어 상대높임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

예) 난 사과 먹젠.(난 사과 먹을 거야.)

난 서울 가젠마씀.(전 서울 가려고요.)

-주

평서형 종결어미로 ‘-주’에는 화자의 의지, 단정, 추측의 의미가 반영되어 있으며, 약속의 의미로도 쓰인다.

예) 나가 감저 삶아 주주.(내가 고구마 삶아 주지.)

-주마는

종결어미 ‘-주’에 보조사 ‘마는’이 결합된 형태이며, 연결어미로 쓰인다. 표준어 ‘-지마는/지만’에 대응한다. 선행절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후행절의 내용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때 쓰인다.

예) 마논은 맵주마는 몸엔 좋으메.(마늘은 맵지만 몸엔 좋아.)

-(으)카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종결어미이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카’,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ㄹ’ 받침인 용언 어간에는 ‘-카’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는 ‘-으카’는 실제 발화에서 ‘-카’로 실현되기도 한다.

표준어 ‘-(으)ㄹ까?’ 정도에 대응하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이거로 머 행 먹으카/먹카?(이걸로 뭘 해서 먹을까?)

우리 어땡 가카?(우리 어떻게 갈까?)

-(으)코

어떤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종결어미이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코’,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ㄹ’ 받침인 용언 어간에는 ‘-코’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는 ‘-으코’는 실제 발화에서 ‘-코’로 실현되기도 한다.

표준어 ‘-(으)ㄹ까?’ 정도에 대응하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이거로 머 행 먹으코/먹코?(이걸로 뭘 해서 먹을까?)

우리 어땡 가코?(우리 어떻게 갈까?)

-(으)쿠과

명사형어미 ‘-으크’에 ‘이- + -우- + -과’(어간 ‘이-’ + 선어말어미 ‘-우-’ + 의문의 어미 ‘-과’)가 결합하여 ‘-으키이우과>-으쿠과’로 실현된 것이다. 상대높임의 기능이 있으며, ‘-(으)크’ 뒤에서 서술격조사 어간 ‘이-’가 탈락된 형태이다. 표준어 ‘-(으)시겠어요?’에 대응한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쿠과’, 받침 없는 용언 어간

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쿠과’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 붙는 ‘-으쿠과’는 실제 발화에서 ‘-쿠과’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이거 먹으쿠과/먹쿠과?(이거 드시겠어요?)

무시거 보쿠과?(뭐 보시겠어요?)

-(으)쿠다

명사형어미 ‘-으크’에 ‘이- + -우- + -다’(어간 ‘이-’ + 선어말어미 ‘-우-’ + 어미 ‘-다’)가 결합하여 ‘-으키이우다>-으쿠다’로 실현된 형태이다. 표준어 ‘-겠어요’에 대응되며 상대높임의 기능이 있다. ‘-으크’ 뒤에서 서술격조사 어간 ‘이-’가 탈락된 형태이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으쿠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ㄹ’ 받침인 용언 어간에는 ‘-쿠다’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다음에 붙는 ‘-으쿠다’는 실제 발화에서 ‘-쿠다’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난 라면 먹으쿠다/먹쿠다.(전 라면을 먹겠어요.)

-(으)크라

명사형어미 ‘-(으)크’에 ‘이라’(어간 ‘이-’ + 어미 ‘-라’)가 결합하여 ‘-으키이라>-으크라’로 실현된 형태이다. 표준어 ‘-겠어’에 대응하며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이는 ‘-으크’ 뒤에서 서술격조사의 어간 ‘이-’가 탈락된 것이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는 ‘-으크라’, 받침 없는 용언 어간과 받침 ‘ㄹ’인 용언 어간에는 ‘-크라’가 붙는다.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 어간 다음에 붙는 ‘-으크라’는 실제 발화에서 ‘-크라’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 나가 먹으크라/ 먹크라.(내가 먹겠어.)
이거 사크라.(이거 사겠어.)

-(으)큰게/이큰게

명사형어미 ‘-(으)크’에 ‘-(으)ㄴ게(어간 ‘이-’ + 어미 ‘-(으)ㄴ게’)가 결합한 형태로 표준어 ‘-겠네’에 대응한다. 형태소 ‘-(으)크’ 뒤에서 서술격조사 어간 ‘이-’가 탈락된 형태이다.

이 어미는 주로 형용사에 붙는다.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는 ‘-으큰게’, 받침 없는 어간과 받침 ‘ㄴ’인 어간에는 ‘-큰게’가 붙는다. ‘ㄴ’을 제외한 받침 있는 어간에 붙는 ‘-으큰게’는 실제 발화에서는 ‘-큰게’로 실현되기도 한다. 상대높임의 기능은 없다.

예) 좋으큰게./좋큰게.(좋겠네.)

한편, 선어말어미 ‘-았/었-, -았/엇-’ 뒤에 ‘-(으)큰게’가 붙을 때는 치찰음 ‘ㅅ’에 후행하는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하여 ‘-이큰게’로 실현된다.

예) 좋았이큰게.(좋았겠네.)

□ 본용언 + 보조용언, 보조용언

-고정 허-

‘동사 + -고정 허-’의 구성은 화자의 욕구, 바람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표준어 ‘-고 싶-’에 대응하는데 ‘-구정 허-’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예) 집이 가고정 허다.(집에 가고 싶다.)
피자먹구정 허다.(피자 먹고 싶다.)

나다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여’에 후행하여 본용언이 의미하는 행동을 경험했음을 나타낸다.

예) 그 오름이 가 낚디가?(그 오름에 가 보셨어요?)

난 그거 봐 낚우다.(전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도다

표준어 ‘-아/어/여 주다’, ‘-아/어/여 달다’ 구성에 포함된 보조용언 ‘주다’, ‘달다’와 의미와 기능이 같으며,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여’에 후행한다.

예) 우산 쓱쓸 빌려 도라.(우산 좀 빌려 줘.)

불다

표준어 ‘-아/어/여 버리다’ 구성에 포함된 ‘버리다’에 대응하는 보조용언이다.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여’에 후행하여 본용언이 의미하는 행동의 종결(완결)을 나타낸다.

예) 이거 치와 불라.(이거 치워 버려.)

집필진

연구책임

오승훈(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㉔

제주 사난 제죽사름

발행일 : 2016년 12월 23일

발행인 : 강기춘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

인쇄처 : 도서출판 한그루

문의처 : 064)747-6137

ISBN 978-89-6010-511-9 93090